

리아호나




**전 세계를 축복한 계시,
12쪽**

고결한 부성에: 신성을 보여 주다,
22쪽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비이기적인
봉사, 26쪽

“판을 가져왔어요.” 조셉이 소리쳤다,
32쪽



“아버지들의 고결한
부성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의로운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22쪽.

리아호나, 2018년 6월호

특집 기사

- 22** 의로운 아버지의 영향력
메건 워런
나는 삶에서 아버지상을 통해 의로운
부성애에 관해 배웠다.
- 26** 서로의 짐을 지고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공감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동참한다.
- 32** 성도들: 교회 이야기
— 제4장: 깨어 있으라
수년 동안 기다린 끝에 조셉 스미스는
마침내 금판을 받았으나, 깨어
있으라는 당부 또한 함께 받았다.

교회 본부 기사

- 4** 신앙의 초상: 델바 네테인
- 6** 성역의 원리: 훌륭한 경청자가 하는
다섯 가지
- 10** 교회에서 봉사하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월프리트 아이 및 로라 아이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안식일 성소
엠 러셀 벨라드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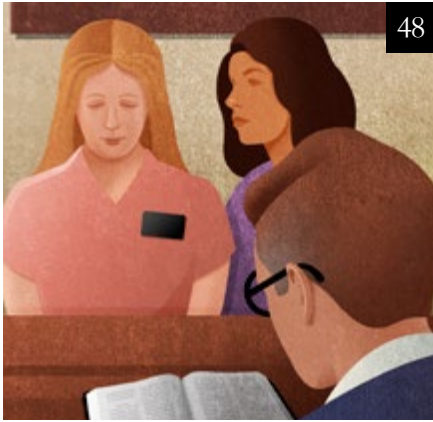


1978년의 계시를 기념하며

- 12** 신권의 축복이 확대되다
어떻게 신권에 관련된 1978년의
계시가 개인, 가족, 교회를
축복하였는가
- 16** 우리 시대를 위한 계시
1978년 6월 1일에 신권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당시에 관하여 네
명의 사도들이 전하는 회고
- 18** 모든 면에서 축복이 되다
에드워드 듀브 장로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에
흑인이 신권을 지니는 것에 대한
제한에 관해 처음 듣게 되었다.
- 20** 신권에 대한 깊은 경외심
살렛 아쿠아
나는 가나에 첫 선교사들이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침례를 받았다.



표지
삽화: 존 맥노튼



48


- 44 인내하며 균형을 이룸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우리는 어떻게 일, 교육, 가족 부양 등의 책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 48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
페이스 서덜린 블랙허스트
하나님은 내가 교만을 버리고 감독님의 비판을 받아들일도록 도우셨다.

- 50 삶을 위한 준비: 상호부조회는 지루할 거라고요?
샬럿 라카발
나는 상호부조회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52 삶을 위한 준비: 장로 정원회에서 첫날
델린 루트케
내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장로 정원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 54 선교부 임지로부터: 별도의 도움
앨리 아넬
- 56 우리들 공간
- 58 한 장 한 장 말하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리처드 엠 롬니
반 친구가 물몬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자, 나는 물몬경의 가르침을 스스로 발견해 보기로 했다.
- 60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별의 은사란 무엇인가?
- 62 자신의 은사 발견하기
유스티나 리히너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싶은가? 여기 아홉 가지 방법이 있다.
- 64 포스터: 영적인 빛
- 65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빛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76

- 66 빛을 비추라: 사랑을 보여요
가족에게 봉사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 68 필릭스 재우기
하이디 풀먼
앤턴은 다시 컴퓨터 게임을 하러 가고 싶었지만, 남동생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 70 토르티야, 그리고 친구
린지 스티븐스 태너, 머리사 드니스
에이드리아나는 이웃에 사시는 마르가리타 할머니와 같이 간식을 먹을 수 있어 행복했지만, 할머니와 우정을 나눈다는 사실이 더 행복했어요!
- 72 음악: 기적
샤나 벨트 에드워즈
- 74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 75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
- 76 경전 이야기: 모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킴 웹 리드
- 79 색칠하기: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어떻게 형제자매에게 봉사하나요?



52

2018년 6월호, 제55권 제6호
리아호나 14750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헬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엠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렌드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보니 에이치 코든,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에드워드 듀브, 쉘런 유뱅크, 도널드 엠 홀스트롬,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쿠포파쉬케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하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프랑시스코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투 디 플리트, 로리 플러, 개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쟈슨,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민디 셸루, 차켈 워들레이, 머리사 윌슨

편집 인턴: 세라 시 키난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키 캄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메릴리 차에코 래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글호스트

디자인 인턴: 아하이라 라모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글렌 어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데릭 리차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브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25호, 제55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6월 1일(일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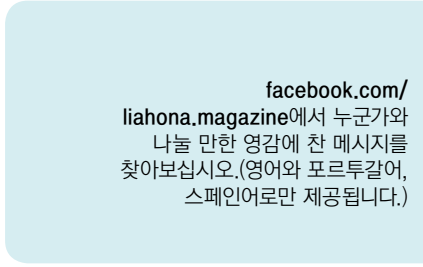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8 Vol. 42 No. 6.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인터넷 활용하기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아이콘: GETTY IMAGES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4, 20, 44, 66, 68

개종 75

경전 58

교만 48

교회 역사 32

기도 4, 16, 43, 44

물문경 30, 56, 58

보살핌 26

봉사 6, 10, 24, 56, 66, 70

부성애 20

분별력 60

상호부조회 50

선교 사업 41, 42, 54, 75

선지자 56, 76

성신 4, 48

성찬 80

순종 32, 76

신권 12, 16, 18, 20

신앙 4, 18, 44

안식일 80

연차 대회 56

영적인 빛 64, 66

영적인 은사 60, 62

예수 그리스도 26, 58, 72, 74

우선순위 44

우정 70

자신감 60

장로 정원회 52

재능 62

정직 48

조셉 스미스 32

하나님 아버지 40, 43, 75

회복 32





신앙의 초상

둘째를 임신한 지 4개월째 되었을 때, 델바는 태아에게 13번 삼염색체증(파타우 증후군)이라는 매우 희귀한 염색체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기가 살 확률도 희박하고 델바의 목숨도 위태로웠기 때문에 의사들은 누누이 낙태를 권했다. 불확실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델바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델바 네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임신한 지 8개월하고 2주째가 되었을 때, 나는 4차원 입체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이전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들은 신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기의 손과 얼굴에 기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영상이 더 자세히 보이는 4차원 입체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시작했을 때, 나는 아기가 화면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손을 나를 향해 흔드는 것을 보았다. 눈과 입도 모두 완벽히 정상이었다. 아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딸 멜라가 태어날 때, 전문의들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멜라는 13번 삼염색체증이 아니었다. 의사와 전문의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나와 남편은 그것이 기적임을 알았다.

성역의 원리 훌륭한 경청자가 하는 다섯 가지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면, 사람들에게 구주와 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면과 현세적인 면에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십 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듣는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을 통해) ... 주어질 것입니다.”¹

우리는 경청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경청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이고,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영을 불러들여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분별의 은사를 축복받게 된다.² 여기 더욱 잘 경청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공통점을 찾는다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의 불안과 방어적인 태도를 가라앉힐 수 있다.(마태복음 5:25 참조)

되짚어 본다

여러분이 들은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해 보고, 상대방의 느낌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며,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을 기회를 상대방에게 준다.

시간을 준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기 전후로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야고보서 1:19 참조) 말을 마쳤다고 해서 할 말을 다 했다는 뜻은 아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욥기 2:11~3:1 및 엘마서 18:14~16 참조)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성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상대방이 말을 마쳤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려는 유혹을 물리친다.(잠언 18:13 참조) 그 대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 더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면, 더 나은 응답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다

이해하지 못한 점을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마가복음 9:32 참조)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오해를 줄일 수 있으며, 여러분이 대화 내용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경청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며, 상대방에게서 배우기 위해 경청”해야 한다고 가르쳤다.³ 다른 사람에 관해 알고자 하는 의도로 경청하면, 그들의 필요 사항을 더 이해하기 쉬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주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영의 속삭임도 더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경청은 사랑하는 일이다

홀런드 장로가 전하는 다음 이야기는 경청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제 친구 트로이 러셀은 … 차고에서 작은 트럭을 천천히 몰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뒷바퀴가 무언가를 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도로에는 아홉 살 난 그의 소중한 아들 오스틴이 길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 오스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

구주와 같이 사람들을 보살핌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마태복음 20:30, 32~34)

우리는 구주께서 경청하신 방법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잠을 이루지 못하며 평안을 찾지 못하던 트로이는 슬픔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그 고뇌의 시기에 … 존 매닝이 왔습니다.

존과 그의 후임 동반자가 어떤 일정에 따라 러셀 가족을 방문했는지 …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난 봄에 매닝 형제님이 마치 작은 오스틴을 들어 올리듯 손을 내밀어 트로이 러셀을 그 집 앞에서 있었던 비극에서 끌어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을 … 형제처럼 존은 신권으로 트로이 러셀을 보살피며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트로이, 오스틴은 네가 다시 일어서길 바랄 거야. 농구장에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매일 아침 5시 15분에 데리러 올게. … 미리 준비하고 있어.’

트로이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침마다 오스틴을 데리고 갔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 하지만 존의 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거의 저 혼자 말했고, 존은 듣기만 했습니다. …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제 삶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까지 [존 매닝이] 저를 사랑하고 경청해 주었기에 결국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는 것을 말입니다.”⁴ ■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증인이 되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6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Panel Discussion”(전 세계 지도력 훈련 모임, 2010년 11월) 참조, broadcasts.lds.org.
3. 러셀 엠 넬슨,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라”,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23쪽, 번역 수정.
4. 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의 대표자”,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62~67쪽.



행하라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데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물어본다. 그들의 대답과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 들은 것을 토대로 행동한다.



보살핌의 원리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메시지를 나누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대해 알아 갈 때, 우리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성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윌프리드 아이 및 로라 아이

뉴욕주 브루클린으로 이사하라는 영의 속삭임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봉사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2013년에 우리는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와드가 너무나 좋았다.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와드 경계 내에서 더 큰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딱 좋아 보이는 집을 찾았는데, 웬지 이 결정이 맞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봄이 되면서, 내내는 브루클린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우리는 브루클린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내가 일하는 투자 은행은 근무 시간이 길어서 통근 거리라도 줄여 보고자 나는 회사 근처에서 집을 구하고 싶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연차 대화를 들으며 응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사는 원룸 아파트에서 컴퓨터로 연차 대화 말씀을 들던 중, 우리는 칠십인 정원회의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님이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던 시절의 경험을 듣게 되었다. 장로님은 미국 텍사스주의 스테이크에서 봉사하던 시절, 종종 그 지역으로 이사 오는 가족들에게 어느 와드가 가장 좋은 곳이나는 질문을 들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와드는 어느 곳인가 하는 질문을 들어 본 것은 16년간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다.¹

엘리스 장로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엘리스 장로님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훌륭한 유아반과 초등학교가 갖춰진 와드에 남은 대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

당시에 우리는 뉴욕 맨해튼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의식 봉사자 중에는 뉴욕시 전체를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두 와드를 제안하셨다. 두 곳 다 브루클린에 있는 와드였다.

첫 번째 와드는 우리 회사와 너무 먼 지역이었다. 두 번째 와드는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웠는데, 그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던 날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와야 할 와드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와드에는 아이티에서 이주해 온 회원이 많았는데, 나는 가봉 출신이라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다. 우리는 이 와드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놀라운 경험들

몇 주 후, 우리는 집을 구해서

이사했다. 나는 곧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이티의 크리올어를 이해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나는 모임과 접견에서 회원들을 위해 통역할 만큼 말이 빨리 늘었다.[크리올어: 프랑스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아프리카어가 섞여 만들어진 아이티의 공식 언어-웁긴이] 아내 로라도 다양한 역할로 봉사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우리는 선교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귀 친구 중에는 교육을 위해 아이티에서 온 노밀 로미유라는 젊은 구도자가 있었다. 노밀이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집에 오면 우리는 프랑스어와 아이티 크리올어로 복음 토론을 도와주었다. 노밀이 침례를 받자 우리는 그가 교회의 Pathway 프로그램(교회의 진학 프로그램-웁긴이)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었고, 노밀은 거기서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다. 후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맨해튼 성전에서 열린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우리는 또한 암 치료를 위해 아이티에서 뉴욕으로 오신 한 충실한 자매님을 와드에서 만났다. 자매님이 뉴욕에 머무시는 동안 와드 평의회는 최선을 다해 자매님을 도왔고, 병원을

오가는 일을 포함해서 자매님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자매님을 위해 봉사하고 방문하는 축복을 받았다. 자매님이 쾌차하시기를 바랐지만, 결국 자매님은 돌아가셨다.

이 두 경험은 와드가 성도들을 돕고 이끌어 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우리는 이 일들을 비롯해 기억에 남을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할 때 주님도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루클린에서 하게 된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내가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삶에 치우치는 대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투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 나도 이따금 집에서 밀린 업무를 할 때가 있긴 했지만, 주님은 일요일에는 절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

브루클린으로 이사할 때, 우리는 와드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우리를 포함해 두 집뿐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사하고 2주 후에 와드의 경계가 조정되면서, 몇몇 젊은



가족이 우리 와드로 옮겨 왔다.

언젠가 우리는 가봉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우리는 브루클린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이사해야 한다는 속삭임을

따랐던 것에 감사드린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올 수도 있다. ■

글쓴이들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산다.

주

1. 스탠리 지 엘리스, "주님의 방법",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36~38쪽 참고.

신권의 축복이 확대되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가
그분께 돌아갈 길을 마련하셨다.

편집자 주: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그 일에 관해 들었는지를 기억할 만큼 중요한 사건은 흔치 않다. 하지만 신권에 관한 1978년의 계시는 성도들의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계시에 관한 내력이나 그 계시가 하나님의 가족에 미친 중대한 영향을 주어진 지면 안에서 충분히 분석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리아호나는 계시 40주년을 기념하여 아래의 간략한 소개말에 이어 개인적인 글들을 짚박하게 모아 놓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21쪽의 추가 자료 목록을 참조한다.

목 문경에는 “검거나 희거나, 매향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를 포함하여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는 가르침이 있다.(니파이후서 26:33)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기에 우리 각자가 그분께 돌아갈 길을 마련하셨다.(모세서 5:9; 신앙개조 제3조 참조) 교회사를 통틀어 보면, 이를 위해 모든 인종과 민족이 침례를 받고, 충실한 후기 성도로서 생활해 왔다.

회원들이 공식선언-2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 1978년 10월 연차 대회 중
에 있는 제일회장단, 신권에 관한
계시는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며
성전 축복의 문을 열었다. 오른쪽:
발표되었거나 건축, 또는 운영 중인
아프리카의 8개 성전 중 하나인 가나
아크라 성전 경내를 산책하는 가족.



1978년 제일회장단 시전, 교회 역사 도서관의 회기를 받아 게재



교회는 1800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을 신권에 성임하지 않았으며, 흑인 남성이나 여성이 성전 엔다우먼트나 인봉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¹ 이 관행의 근원을 알려 주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이 제한에 대해 설명하려 시도한 이론은 결코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설화”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설명이라 하더라도, 저는 거의 모든 것이 부적절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다만 그 관행이 왜 확립되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²

브리검 영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와 교회 회장은 합당한 모든 남자가 신권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알고, 흑인 후기 성도들의 충실함을 목격해 교회 지도자들은 20세기 중반에 “오랫동안 간절히 탄원하였고 … 주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다.”³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

그 인도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이 “거룩한 성전에 있는 성스러운 방에서 오랜 명상과 기도를 한 후에” 주어졌다. 1978년 6월 1일에, 주님은 당신의 선지자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충실하고 합당한 남자가 거룩한 신권과 함께 그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성전의 축복을 포함하여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날이 바야흐로 이르렀다”라고

대다수 와드에 세계 도처에서 온 다양한 회원이 있는 프랑스 파리의 정원회 모임에서 가르치는 청년.

계시하셨다.⁴

제일회장단은 이 계시를 발표하며, “우리는 주께서 … 온 세상에 있는 그의 모든 자녀들의 축복을 위한 그의 뜻을 이제 알게 하셨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라고 언급했다.⁵

제일회장단은 다음 연차 대회에서 이 계시를 교회 회원들에게 전했으며, 회원들은 이를 “주의 말씀과 뜻”으로 받아들이고 경전의 일부로서 공식선언 2를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계시의 결과

이 계시의 영향은 엄청났다. 하나님은 신권과 성전의 축복을 인종에 관계없이 합당한 모든 회원에게 확장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위해 성전 의식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계시로 말미암아 선교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생겼으며,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사이에서 회원이 늘어났다.

교회의 가르침

주님의 사업이 전 세계로 계속 퍼져 나감에 따라 교회 회원들은 더 큰 단합의 시대를 누려 왔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교회 회원들 간의 교류가 점점 더 늘어나자,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강화하며 모든 종류의 편견과 인종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용하고, 인종 차별, 성차별, 국수주의 등 어떠한 편견도 지양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임을 참으로 믿습니다.”⁶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에 관해 말씀하며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때만 인간의 참된 형제애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인종 차별이라는 벽 대신에 협동이라는 다리를 세우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⁷

함께 앞으로 나아감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가 되어 영원한 가족을 이루도록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회복된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길에서 맞닥뜨리는 기회와 어려움을



통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모로나이서 7:48 참조) ■

주

1. “인종과 신권,”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2. “The Mormons”(interview with Jeffrey R. Holland, Mar. 4, 2006), pbs.org/mormons/interviews; 또한 Dallin H. Oaks, “Apostles Talk about Reasons for Lifting Ban,” *Daily Herald*, June 5, 1988, 21 참조.
3. 공식선언-2.
4. 공식선언-2.
5. 공식선언-2.
6. 엠 러셀 벨라드, “여정은 계속됩니다!”, *리야호나*, 2017년 11월호, 106쪽.
7. 러셀 엠 벨슨,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70~71쪽.

우리 시대를 위한 계시

1978년의 계시에 관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회고

편집자 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하나님께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주신,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합당한 회원에게 신권 축복이 주어질 시기가 되었다는 계시를 직접 들은 마지막 사도였다. 여기 그날 그곳에 있던 네 사도가 전한 몇 가지 간략한 이야기가 있다.

간구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
제12대 교회 회장

“저는 매일 참으로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전의 위층 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 영혼을 쏟아부었으며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

우리는 어디에서나 모든 합당한 남녀가 복음의 충만한 축복의 상속자와 참여자가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히 알려 주신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구주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성전의 위층 방을 혼자서 며칠 동안 여러 차례 드나들며 제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가깝게 느꼈는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게 무척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 (2006), 238, 239쪽.

기도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
제16대 교회 회장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함께하는 모임을 마치기 위해, 우리는 [성전의] 제단에서 김볼 회장의 인도로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지대한 결말을 가져올 이 문제에 관해 주님께 빛과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고귀한 부름을 받은 그분이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간청을 드리는 동안, 듣고 있던 사도들은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

제일회장단은 후에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임에 감동된 화평과 단합의 정신은 ...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 가장 훌륭했으며,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토론에 만족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

... 주님의 선지자가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는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Heidi S. Swinton, *To the Rescue: The Biography of Thomas S. Monson* (2010), 393.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성찬을 전달하는 집사. 1978년의 계시 덕분에 인종에 관계없이 합당한 신권 소유자는 신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계시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에게 ...
성신을 부어 주셨습니다. 계시가 교회
회장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곳에 있던 각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
10명과 제일회장단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권
및 주님의 집의 축복을 포함한 복음과 그에 따른 축복 및
책임이 모든 국가와 문화와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김볼 회장님은
알게 되었으며, 또한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각자도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계시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나 당시 받은 메시지나 말씀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All Are Alike unto Go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ug. 18, 1978), 4, speeches.byu.edu.

확신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제15대 교회 회장

“그 방에는 신성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힘을 합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통로가 열려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성신의 권능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분이 간구한 내용은 옳고 그 시기가
도래하여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있는 합당한 남성에게
놀라운 신권 축복이 전해져야 한다는 확신이 임했습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그 원형 기도를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Priesthood Restoration,” *Ensign*, Oct. 1988, 70.

김볼 회장과 힝클리 회장이 이 계시에 관해 회상하는 경험담을
lds.org/go/061816에서 듣는다.



에드워드 듀브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모든 면에서 축복이 되다

이 계시는 나와 내 가족 및 아프리카의 교회에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편집자 주: 1978년의 계시로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하나님이 왜 애당초 그 제한을 두셨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여기서 듀브 장로가 이 질문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준다.

나는 선교 사업 도중에 흑인이 신권을 지니는 것에 대한 제한에 관해 처음 듣게 되었다. 나는 이 제한이 종료되었던 1984년에 침례를 받았고, 2년 후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짐바브웨 블라와요에서 봉사하는 동안, 나는 동반자인 프랜시스 잭 장로와 활동이 뜸한 한 자매를 방문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교회의 신학 교수였다. 그는 왜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에게 신권을 유보했는지 우리에게 물었다. 그는 내가 들어 보지 못한 것들을 말하여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 방을 나섰을 때, 내 기분은 몹시 가라앉았고 나는 매우 낙담했다.

잭 장로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듀브 장로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요? 매우 뒤숭숭해 보여요.”

“그분 말씀 안 들으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장로님, 장로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나는 말했다. “그런데 그게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죠?”

“모든 게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잭 장로가 대답했다. “우리는 계시를 믿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의 말과 교수가 한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 행복과 화평을 느꼈다.

모든 복음 질문에 대한 답은 1820년에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을 안다는 것은 조셉이 선지자였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셨다면, 모든 복음 원리와 질문은 앞뒤가 맞는다. 이 교회는 계시의 교회이며, 주님은 특정한 시간에 당신의 종인 선지자에게 특정한 과정을 계시하신다. 나에게 화평을 가져다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팔짝팔짝 뛰며 내 동반자를 깨워 소리쳤다. “그래요, 그래요! 잭 장로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셨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제한을 해제한 것은 아프리카 전역의 회원에게 축복이

되었다. 신권은 나와 내 가족에게 모든 면에서 축복이 되었다. 성전의 축복, 즉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축복을 받았기에 나는 큰 힘을 얻었다.

신권이 주어지자 아프리카는 축복을 받았다. 이곳 백성은 본래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인데, 여기에 복음이 더해졌다. 아프리카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을 크나큰 축복으로 여긴다. 교회는 이곳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곳 회원들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나아가 그 뜻을 행한다. 이는 회원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실업률이 90%에 이를 때에도 우리 회원들은 자립했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것 같다. 신권 및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신권을 소유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린다. 신권이 내 인생에 가져다준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신권이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회원들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

에드워드 듀브 장로는 짐바브웨에서 태어났으며, 부인 나오미와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영국 프레스턴의 성전에 가는 청소년.
1978년의 계시 이후,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성전 의식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



신권에 대한 깊은 경외심

샬럿 아쿠아

1978년의 계시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편집자 주: 이 계시는 인종을 불문하고 합당한 남성에게 신권 성임을 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이 계시로 성전 의식 및 성약의 특권과 의무를 비롯하여 신권의 모든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다. 가나 교회의 초기 회원인 샬럿 아쿠아가 아프리카 내 교회의 공식적인 설립에 관한 증언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생기고 성전에서 가족으로 인봉된 일을 포함하여 이 계시가 어떻게 그녀의 가족 전체에게 축복이 되었는지에 대해 논한다.



나는 어머니가 1968년에 조셉 더블유 비 존슨의 그룹에 가입하셨을 때 처음 이 교회에 관해 들었다.¹ 열 살 무렵이었다. 1966년의 쿠데타로 아버지의 사업이 쇠퇴하여 가족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했다.

1978년의 계시 전에는 흑인에게 신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에 교회는 비공식적인 상태로 있었으나, 이 계시 이후에는 신권 권세로 설립될 수 있었다. 나는 1979년 2월 24일에 침례를 받았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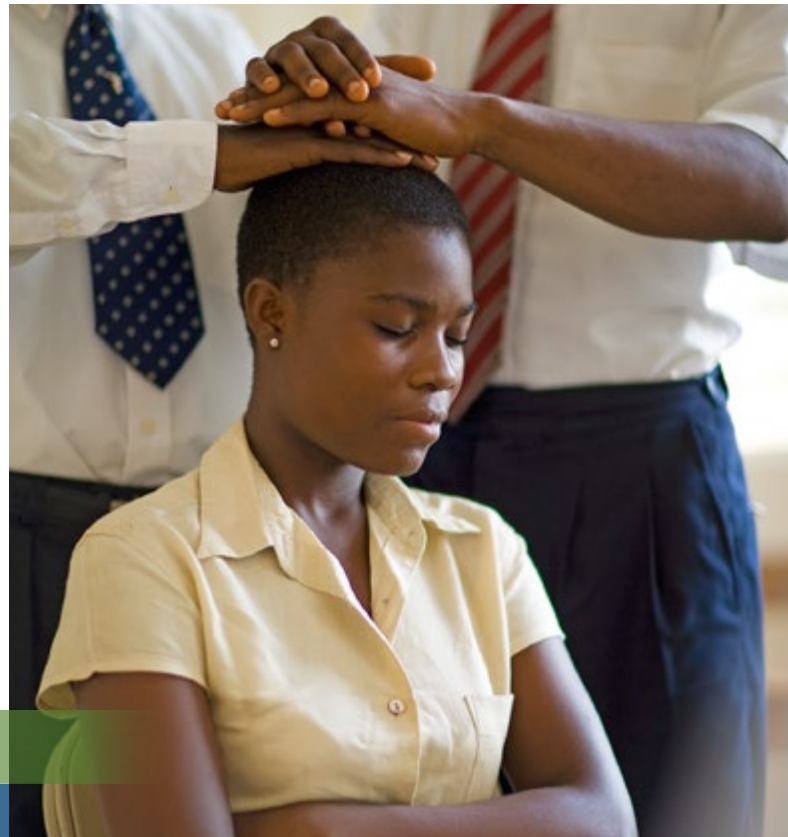
남편은 2년에 걸쳐 교회에 관해 공부하고, 나와 약간의 논쟁을 한 후에야 교회에 가입했다. 마침내 그는 1980년에 침례를 받았고, 그런 다음 신권을 받았다. 남편이 매우 조용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의 집안사람들은 어떻게 그토록 변했는지 의아해했다. 남편은 자기가 지닌 신권을 조심스럽게 대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남편은 자신이 신권을 지니지 않았다면

인간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권이 있기에 그는 결혼, 가정,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신권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가족 평의회를 한다. 아버지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내와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회 회원인 남자는 아내가 그들을 섬기는 대신에 아내를 섬긴다. 이는 서로에게 사랑과 평안을 가져다준다.

남편이 성찬을 축복하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본 때는 우리가 집에서 성찬식을 했던, 이른바 “암흑기” 중이었다.³ 우리는 당시 남편이 신권을 지녔기에 매우 기분이 좋았다. 우리에게 성찬을 축복해 주러 아무도 오지 않아도 되었다. 남편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했고, 우리는 너무 좋았다.



흑인이 신권을 지니도록 허용하지 않는 문제를 다른 글을 내가 처음 읽은 때는, 반물문 서적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암흑기 기간이었다. 나는 복음이 참됨을 알기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두라고 배운다. 따라서 내 신앙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1996년 12월 17일, 우리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에 갈 수 있었다. 나는 신바람이 났다. 단 며칠 만에 우리의 첫 아이인 죽은 사내아이가 우리에게 인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특히 그랬다. 나는 그 아이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죽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에게 인봉된 일은 결코 잊지 못할 영적 경험이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아이가 몇이냐고 물으면, 나는 자녀가 여덟 명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어떻게?”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네, 첫 아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렸죠.”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나는 신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신권 축복을 해 달라고 할 때마다 늘 기쁘고 마음이 고양된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권을 지닌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가정에서 깊은 경외심으로 신권을 대한다. 이제는 세 아들이 결혼하여 자기들 가정에서 신권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신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에 참되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기에 신권은 살아 있는 권능이다. 그분은 그 권능의 일부를 지상에 있는

남성인 자녀에게 주셨다. 우리 여성도 신권을 공유한다. 나는 깊은 경외심으로 그것을 대한다. 신권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글쓴이는 가나 센트럴주에 산다.

주

1. 1960년대 중반에 가나에 살던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은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받고 비공식적인 교회 집회를 개설해야 한다고 느꼈다.
2. 1978년 11월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가나에 공식적으로 배정되었다.
3. 1989년 6월 14일에 가나 정부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금지했으나 회원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은 허용했다. 18개월 후, 가나 정부는 교회가 회원에게 국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인종 화합을 촉진하는 것에 만족함을 표명했으며, 1990년 12월 1일에 가나는 교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더 찾아보기

-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topics.lds.org의 복음 주제 글 인종과 신권을 읽는다.
- 1978년의 계시가 자신의 삶과 개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설명하는 몇몇 흑인 회원의 감동적인 경험담을 읽는다.
 - lds.org/go/061820a의 “충실함을 보고서: 공식 선언-2”에 나오는 샬럿 아쿠아와 윌리엄 아쿠아(가나), 에우베시우 마틴스와 루다 마틴스(브라질), 조셉 프리먼과 토 프리먼(미국).
 - lds.org/go/061820b의 “I Will Take It in Faith”에 나오는 조지 리포드(영국).
 - lds.org/go/061820c의 “그것은 진리였다”에 나오는 빅터 뉴젠트(자메이카).
- 수백 명이 이미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서아프리카 첫 선교사들의 사진과 동영상은 lds.org/go/061820f에서 본다.

의로운 아버지의 영향력

나는 의로운 아버지상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부성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메건 워런

어린 시절부터 내 삶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기에 나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해 볼 곳이 딱히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부성의 모범이 되었던 남성들을 관찰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아버지들의 고결한 부성애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속성들을 보여 줍니다.” 친척, 교회 지도자, 경전에 나오는 의로운 남성들, 그리고 근면한 가정 복음 교사를 포함한 많은 아버지들의 모범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지상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 발전시킬 수 있는 고결한 속성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데서 오는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한결같이 힘이 되어 주는 존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다. 경전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것을 배운다.(몰몬서 9:9) 나는 고결한 육신의 아버지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그 변하지 않는 일관성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발견했다. 고결한 아버지는 매사에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킨다. 그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가 스스로를 안전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어려울 때나 기쁨 때나 자녀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가 하는 고된 노력들을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며,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우리가



권민, 이진, 제시, 알리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신다. 고결한 욱신의 아버지들도 사람은 도전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알기에 때때로 자녀가 어려움을 겪도록 놓아둔다.

나의 남편은 출중한 무술인이다. 남편은 시아버지께 무술을 배웠는데, 종종 아버지가 남들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시아버지의 훈육 덕에 그는 강건해지고, 더 빨리 발전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고결한 욱신의 아버지들은 힘과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녀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끝이 없는 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일은 영원하며 끝이 없다.(엘마서 12:25~33 참조) 마찬가지로, 고결한 욱신의 아버지들 역시 끝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고결한 아버지들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의를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수한다. 그들은 자기 본위의 일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² 이것은 신체적인 보호뿐 아니라 영적인 보호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고결한 아버지들은 모범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사랑하며, 조언한다. 또, 필요할 때는 영적인 위험을 경고한다.

나에게 힘을 주는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

브루스 파일러는 *뉴욕 타임스*에 쓴 “The Stories That Bind Us[우리를 결속시켜 주는 이야기들]”라는 기사를 통해 가족이 약화되는 것에 관한 여러 연구를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그런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들은 가장 큰 회복력을 보인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가족 내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고, 그것은 어린이들이 스스로가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파일러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이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가족과 보낸 좋은 시간들, 그리고 힘든 순간을 던고 일어난 여러분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다듬어서, 자주 들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가족이 앞으로 수 세대 동안 번성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³

이러한 예는 모세서 1장에서도 볼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신의 성스러운 정체성을 아는 지식에서 힘을 얻었다. 사탄이 그를 유혹하러 왔을 때, 모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요 그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네 영광이 어디 있기에 내가 너를 경배해야 하리요?”(모세서 1:13) 그런 다음 모세는 심지어 사탄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용기까지 냈다.

고결한 욱신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신성한 정체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자녀에게 힘을 준다. 그들은 좋은 모범을 통해 강한 가족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또한 자녀를 그 일에 반드시 참여시킨다. 이것은 자녀에게 강한 목적의식과 더불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준다.

고결한 남편감을 찾아서

나는 데이트를 할 때 고결한 아버지가 될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자 했다. 어린 시절에 그런 모범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에, 나는 고결한 욱신의 아버지가 갖추어야 할 특성들을 알기가 더 어려웠다.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시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기도 했다. 축복문에는 그저 나를 성전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내용도 나에게서는 어려웠다. 나는 몇 번의 괜찮은 데이트를 한 적이 있긴 했지만, 때로는 그런 남자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그저 끝없는 마음의 고난을 겪기로 정해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데이트 경험에서 비롯된 불안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내 자녀들을 위해 의로운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해 줄 남편감을 찾고자 계속해서 기도했다. 신앙이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영원하신 아버지께 기대어 도움을 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놀랍고 기쁘게도, 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응답되었다. 사랑 많은 아버지의 본보기가 되어 주는 남편을 보면서 내 마음은 치유되고 있다. 그가 선지자와 사도가 세우신 모범을 따르고 나를 이타적으로 소중히 대하고 사랑할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저자가 자신의 남편과 딸을 그린 수채화.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버지상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던 가정 복음 교사에게서 영감을 받아 미술을 공부하게 되었다.

느낀다. 그가 보여 주는 사랑 많은 남편의 본보기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있다. 내 가슴은 이제 시련 중에도 그가 보이는 충실함, 근면의 모범, 합당하게 신권을 행사하는 모습, 젊은 아버지로서 보이는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우리 주변의 아버지들

모세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남성들은 무한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세리 듀 자매는 양육하는 모든 여성은 심지어 자녀를 출산하기 전이라도 어머니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가르쳤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부름은 자라나는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지상의 위험한 거리들을 무사히 지나가게 돕는 것입니다.” 의로운 모범을 보이는 남성들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고, 정결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기 가족의 범위를 넘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시련 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영원한 동반자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고 확신한다. 그분은 내 삶에 확고한 부성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다. 그런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의로운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고,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을 이해하고 나를 당신 화실의 학생으로 받아들여 직업 화가로서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영감을 준 부지런한 가정 복음 교사도 있었다. 청년 독신 시절에는 의로운 새아버지를 맞는 예기치 못한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치유를 받았다. 새아버지는 아버지의 존재를 신뢰하는 데 애를 먹는 나를 인내하며 계속해서 친절을 보여 주셨다.

이러한 아버지상의 의로운 영향력을 통해 나는 희망과 치유, 기쁨을 얻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모범을 따르고 고결한 부성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남성에게 감사를 전한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다.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54쪽.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3. Bruce Feiler, “The Stories That Bind Us,” *New York Times*, 2013년 3월 15일, nytimes.com.
4. 세리 엘 듀,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아닌가요?”, *리야호나*, 2002년 1월호, 113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서로의

짐을 지고

이 기사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2017년 6월에 LDS 가족 서비스부 직원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더 많은 독자에게 전하기 위해 홀런드 장로는 기존 내용을 다소 조정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름지기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베드로전서 3:8)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매일 그 계명을 명예롭고도 훌륭하게 완수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정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략 미국의 성인 5명 중 1명(4,380만 명)이 정신 질환을 앓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¹ 음란물도 넘쳐나고 있는데, 어떤 웹사이트는 2016년 한 해 방문자가 230억 명이 넘었습니다.² “양부모 가정이 미국에서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이혼, ... 동거 [및 혼외 출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 출생하는 10명 중 최소 4명은 독신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과 생활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납니다.”³

구주의 백성으로 불리고 그분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모사이야서 18:8~9)

저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올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시온 산에 올라”온 구원자들이



여정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도
그 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고쳐서이며 그림의 일부, 제이, 카크 리카르

사진: GETTY IMAGES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올리고자 할
때, 우리는 “시온
산에 올라”온
구원자들이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은
세상의 구속주 및
그분의 속죄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됩니다.(오바댜 1:21 참조)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은 세상의 구속주 및 그분의 속죄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합니다.(이사야 61:1)

신성한 공감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르는 모든 인류의 죄와 슬픔, 고난과 눈물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경험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지만, 죄 지은 사람들의 고통과 그 결과는 느껴 보셨습니다. 깨진 결혼 생활도 직접 겪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또, 강간, 조현병, 암 또는 자녀를 잃는 일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주님은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 결과를 느껴 보셨으며, 끝없이 계속되는 길고 긴 삶의 짐들과 심적 고통들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세상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공감에 대해 참되고도 신성한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분명 그 어떤 말로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행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를 대신할 만한 더 나은 말이 없으므로, 저는 그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과거나 현재에 가졌던 감정, 생각, 경험을 이해하고 ... 대신하여 경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⁴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은 특히 “과거”와 “현재” 사이에 “미래”까지 더한다면,

사실 이것은 속죄의 과정을 적절하게 잘 설명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매우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간증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어떤 성취감이나 미래의 기쁨도 기대하지 못하기에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평생 외로운 밤과 음울한 아침을 맞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청년 독신 와드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도 저는 제가 절대 그곳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매주 교회를 나섭니다. 저는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수도, 딸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며 제 손가락을 잡는 것도 결코 느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손자가 생기는 일도 절대 없겠지요.

매해, 매달, 매일을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만을 붙든 채 말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왜 그런 불가능한 희생을 하도록 요구하시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밤이 되면, 저는 흐느껴 읊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님께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과 제 친구들이 ... 제가 그렇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앞서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모두 거부했던 것처럼, 저도 거부했겠지요. 저는 늘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제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히고 기피하는 독신이 되거나, 독신인 이유를 말하고 동정과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길고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될 듯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 것일까요?”⁵





너무나 심한 고통과 낙담, 너무도 절망적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반드시 주어야 할 한 가지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며,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고, 우리 또한 함께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공감. 정말 별 것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길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무도 그 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짐이기 때문입니다. 짐이 언제 없어질지, 필멸의 삶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견고 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 들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엘마서 7:11~13 참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구주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확실히 새롭고도 더 밝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평안과 이해를 갈구하려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둬서 시험받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중대한 확약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된 구주, 구속주가 계시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시험과 시련을 이겨 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보냄을 받은 아들께서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실지라도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겪은 고통에 비해 작은 우리의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며,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⁶

종종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사심 없이 봉사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또는 한 번 성공했다 해서 그 성공이 계속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들의 퇴보를 막을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분께 의지해야만 합니다.(니파이후서 9:21 참조)

우리는 종종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면 간혹 도움을 줄 수 있었더라도 계속 돕거나 같은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신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대리인이 되고자 계속 노력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자신을 다시 강화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우리는 중대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봉사는 말 그대로 주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많은 것을 취해 갈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다시 강화하고 다독여야만 합니다. 너무 강해서 피로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돌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그러한 피로감과 자신의 힘이 소진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배풀고 또 배푸셨지만, 그것에는 팔린 대가가 있었고, 그분은 당신에게 의지하는 많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아 온 여자가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 손을 댔을 때, 그분은 그 여자를 고쳐 주셨지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마가복음 5:25~34 참조)

갈릴리 바다에 너무도 거센 폭풍이 불어 경험 많은 어부인 제자들조차도 배가 뒤집히려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 예수께서 그렇게 굳히 주무셨다는 사실이 저는 늘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피곤하셨던 것일까요? 설교와 축복을 전한 후 완전히 탈진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타인을 보살피는 사람도 보살핌이 필요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려면, 먼저 탱크에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로잘린 카터 병간호 협회의 로잘린 카터 이사장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간병인이었던 사람, 현재 간병인인 사람, 간병인이 될 사람, 그리고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⁷

분명, “간병인과 간호를 받는 사람의 관계는 [진지하고도 심지어는] 신성한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⁸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도전을 경험할 때, 누구든 자신이 돌보는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감정을 이입할 때 받게 되는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타인을 보살피는 여러분의 역할과 삶의 다른 측면, 곧 직장,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즐기는 활동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제로 전해 드린 연차 대회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고 그렇게 깊이 돌보고 선을 행하려는 의도로 일하시는 모든 분께 찬사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도 살면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아웃과]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를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모든 일은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모사이야서 4:27 참조)⁹ 그런데도 저는 많은 사람이 너무도 빨리 달리고, 때로는 에너지와 감정 공급이 거의 바닥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는 데이비드 배티가 쓴 에세이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한가운데로 덮쳐오는 기쁨의 파도가 아닙니다.

… 희망은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희망은 삶의 폭풍에 휩싸이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둘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리라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엄청난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심을 아는 희망을 통해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¹⁰

저는 이런 어려움과 확신의 부족을 다루는 바울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경전에서 주님은 주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며, 사실 주의 힘이 실제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9)¹¹

아버지와 아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그분들 역시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아시며, 다른 사람들을 강화하시기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거나 세상이 갑자기 평화롭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무시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는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외로운 사람, 기가 꺾인 사람, 중독된 사람, 아픈 사람, 절망적인 사람 등 모든 사람의 기도가 무시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¹²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우리는 중대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봉사는 말 그대로 주님의 일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받는 편지의 수를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그런 도움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천사가 휘장 저편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매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를 낳아 준 분들이고, 저의 경우에는 저와 결혼하는 데 동의해 준 사람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너무도 선하고 순수해서 천사 같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만큼 하늘이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일 때가 없습니다.”¹³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제게 정말 말 그대로 자비의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기울인 모든 노력이 백 배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Mental Health by the Numbers,”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ami.org 참조.
2. “World’s Largest Porn Site Reveals the Most-Searches Porn Genre of 2016,” Fight the New Drug, Jan. 9, 2017, fightthenewdrug.org 참조.
3. “Parenting in America,” Pew Research Center, Dec. 17, 2015, pewsocialtrends.org; see also D’Vera Cohn and Andrea Caumont, “10 Demographic Trends That Are Shaping the U.S. a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Mar. 31, 2016, pewsocialtrends.org.
4.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empathy”.
5. 개인 서한.
6. 제프리 알 홀런드,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0쪽.
7. See rosallyncarter.org/UserFiles/Jensen.pdf; see also Rosalynn Carter, in Randi Kaplan, “How to Care for the Caregiver,” May 13, 2015, health.usnews.com.
8. Nancy Madsen-Wilkerson, “When One Needs Care, Two Need Help,” Ensign, Mar. 2016, 38.
9. 제프리 알 홀런드, “한 움큼의 음식과 기름 한 방울”,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31쪽.
10. David Batty, “Finding Hope in the Midst of Life’s Problems,” livingfree.org.
11. Anne C. Pingree, “Making Weak Things Become Strong”, Ensign, Dec. 2004, 28~30 참조.
12. 델린 에이치 옥스,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9쪽 참조.
13. 제프리 알 홀런드, “천사의 성역”,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0쪽.





제 4 장

깨어 있으라

다음은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제4장이다. 이 책은 14개 언어의 인쇄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복음 자료실 앱의 Church History[교회사]와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몇 개의 장은 제1권이 출간되는 올해 말까지 앞으로 발간될 리아호나에 연재될 예정이다. 이 장들은 복음 자료실 앱과 saints.lds.org/kor에서 47개 언어로 볼 수 있다.

18 25년 가을, 스물두 살의 에머 헤일은 이웃에 사는 조사이아 스토웰의 인부로 고용된 조셉 스미스라는 한 청년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 청년과 그의 아버지는 조사이아 소유의 땅에서 보물을 찾는 일에 고용된 사람들이었다.¹ 그 지역에는 수백 년 전에 탐험가들이 은광을 발굴해 얻은 보물을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조셉이 선견자의 돌을 쓰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사이아는 조셉에게 두둑한 임금을 약속했고, 보물을 찾으면 거기서 한 몫 떼어 주겠다고 다짐했다.²

에머의 부친인 아이작도 이 사업을 지원했다. 조셉 부자가 팔마이아에서 남쪽으로 2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의 스토웰 농장에 와서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아이작은 증인이 되어 주었다. 또한, 그는 보물 발굴을 돕는 인부들을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했다.³

얼마 후, 에머는 실제로 조셉을 만나게 된다. 조셉은 에머보다 어렸고, 키는 180센티미터가 넘었으며, 힘든 일에 익숙한 듯 보였다. 또, 얼굴이 희고 눈동자는 푸른 빛을 냈으며, 걸을 때 보일 듯 말 듯 다리를 절었다. 그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증언부언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에는 타고난 지성이 묻어났다. 선량한 조셉 부자는 에머의 가족이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에 가는 대신 둘이서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리곤 했다.⁴

조셉과 에머는 둘 다 야외 활동을 좋아했다. 에머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즐겨 탔고, 집 근처 강에서 카누를 타는 것도 좋아했다. 조셉은 말을 잘 타지 못했지만, 몸으로 부딪히며 힘을 겨루거나 공으로 하는 운동을 하면 지는 법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렸으며, 잘 웃고, 농담과 익살맞은 이야기도 자주 했다. 에머는 조금 더 내성적이었지만, 재미있는 농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책과 노래를 좋아했다.⁵

시간이 흐르면서 에머와 조셉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에머의 부모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했다. 조셉은 다른 주에서 온 가난한 샅꾼이었기에, 그들은 딸이 조셉과 떨어져 마을의 유복한 집 자제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게다가 아이잭은 이제 보물 찾는 일을 미심쩍어 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조셉이 하는 역할도 그의 눈에는 수상해 보이기만 했다. 조셉은 보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조사이아 스토웰을 설득해서 보물 수색 일을 접게 했는데, 아이잭 헤일은 그런 것도 다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⁶

그러나 에머는 자신이 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조셉이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조셉을 만났다. 조셉은 은광 찾는 일을 그만두도록 조사이아를 설득해 낸 후에도 하모니에 머물며 조사이아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때로는 인근에 있는 조셉과 폴리 나이트의 농장에서도 일했다. 그러면서 일이 없을 때는 에머를 만나러 갔다.⁷

얼마 안 가서 하모니에서는 조셉과 선견자의 돌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 중에는 선견자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조사이아의 조카는 조셉이 자기 삼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셉을 사기죄로 몰아 법정까지 문제를 끌고 갔다.

조셉은 판사 앞에서 자신이 선견자의 돌을 얻게 된 경위를

2015년에 교회는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 있던 아이잭과 엘리자베스 헤일의 집을 그대로 본뜬 건물을 다시 세웠다. 조사이아 스토웰의 인부로 고용된 조셉 스미스는 그의 농장에 머물던 시절에 헤일 집안의 딸 에머를 알게 되었다.





뉴욕주 맨체스터에 있었던 스미스 가의 집은 원래 구조대로 복원되었다. 조셉과 어머니는 1827년에 결혼한 후, 조셉의 부모와 함께 살았다.

설명했다. 조셉 일세는 아들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선 조사이아는 조셉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은 피고가 그 돌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보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조사이아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압니다.”

조사이아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사였다. 사람들은 조사이아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결국 공판에서는 조셉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은 기각되었다.⁸

1826년 9월, 조셉은 판을 얻기 위해 다시 산을 올랐다. 그러나 모로나이는 조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돈을 찾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러한 무리 가운데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⁹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앞으로 일 년 동안 더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판을 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사는 조셉에게 다음에 올 때는 한 사람을 더 데려오라고

당부했다. 조셉이 처음으로 산에 왔던 날에도 모로나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조셉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앨빈은 이 세상에 없었다. 조셉은 당황스러웠다.

“누구를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곧 알게 될 것이다.” 모로나이가 말했다.

조셉은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구했다. 그렇게 하여 조셉은 어머니가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⁰

어머니는 조셉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었다. 앨빈처럼, 어머니는 조셉이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그분의 사업을 이끌어갈 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조셉에게 어머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조셉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었다.¹¹

12월이 되어, 조셉은 이제 스물한 살이 되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은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¹² 하지만 지난번에 산에 다녀온 뒤로, 이제 그는 판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조셉은 하모니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어머니 헤일과 결혼하려고 해요.” 조셉의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1827년 9월 22일 저녁, 조셉과 어머니는 마차를 몰고 물몬경 판이 묻혀 있는 산으로 갔다. 조셉은 판을 얻은 후 보물 수색꾼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한동안 빈 통나무 속에 판을 숨겨 두었다.

기뻐했다. 루시는 조셉에게 결혼을 하면 한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¹³

그해 겨울, 조셉은 되도록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으며, 눈이 많이 와서 어머니에게 가기가 어려울 때는 나이트 가족의 썰매를 빌려 타고 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모는 여전히 조셉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조셉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요지부동이었다.¹⁴

1827년 1월, 어머니는 조사이아 스토웰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가족들의 따가운 눈초리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조셉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 그곳에서 조셉은 어머니에게 청혼했다. 처음에 어머니는 무척 놀란 것 같았다. 어머니는 가족들이 반대하리라는 것을 알았다.¹⁵ 조셉은 어머니에게 잘 생각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곧바로 함께 멀리 달아날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조셉과 결혼하는 문제를 두고 숙고했다. 조셉과 결혼하면 가족들이 실망하겠지만, 이것은 자신이 선택할 문제였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조셉을 사랑했다.¹⁶

그로부터 며칠 후인 1827년 1월 18일, 두 사람은 어머니의 가족들을 피해 치안 판사의 집에서 혼인 서약을 맺었다. 그리고 맨체스터로 가서 조셉의 부모가 사는 새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집은 안락했지만, 조셉의 부모가 집을 장만하는 데 든 큰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집의 명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스미스 가족은 그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¹⁷

조셉의 부모는 아들 내외를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아들의 신성한 부름 때문에 그들은 애가 타고 있었다. 그 지역에는 금판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듣고 금판을 찾으러 다니는 자들까지 있었다.¹⁸

어느 날, 조셉이 읍내로 일을 보러 나갔을 때의 일이다. 저녁 시간에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셉의 부모는 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조셉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이런 아버지의 물음에 조셉은 “이렇게 혼나 보기는 처음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대체 누가 널 혼냈다는 게냐?”

“주님의 천사요. 그동안 제가 태만했다고 했어요.” 모로나이를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셉이 말했다.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시작해야겠어요.”¹⁹

추수철이 끝나자, 조사이아 스토웰과 조셉 나이트가 일을 보러 맨체스터 지역에 들렀다. 두 사람 다 조셉이 네 번째로 산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이번에는 과연 조셉이 모로나이의 신뢰를 받아 판을 맡을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 지역에서 보물을 찾아다니던 사람들 역시 조셉이 판을 얻으려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인 새뮤얼 로렌스라는 자는 아예 산에서 어슬렁거리며 금판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9월 21일 저녁, 새뮤얼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걱정한 조셉은 아버지에게 새뮤얼의 집으로 가 달라고 부탁했다. 거기서 지켜보다가 그가 산으로 가려는 꾀새가 보이면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²⁰

그런 다음, 조셉은 판을 찾으려 갈 준비를 했다. 이전 같았더라면 내일이 되어서야 산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셉은 9월 22일이 시작되는 자정 직후에 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 시각에 집을 나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하면 보물 수색꾼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판을 가져온 뒤에 그것을 지킬 방도를 찾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다. 식구들이 대부분 잠들자 조셉은 얼른 어머니에게 가서 집에 금고가 있는지를 여쭙었다.

루시가 금고가 없다며 걱정스러워하자 조셉은 “괜찮아요. 지금은 없어도 돼요.” 하고 어머니를 안심시켰다.²¹

잠시 후, 말을 탈 복장을 차려입은 어머니가 나왔고, 조셉과 어머니는 조셉 나이트의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²² 산 앞에 당도하자 조셉은 어머니를 마차에 남겨 두고서 판이 감춰진 곳을 향해 산을 올랐다.

모로나이가 나타났고, 조셉은 돌상자에서 금판과 선견자의 돌을 꺼냈다. 조셉이 산에서 내려가기 전, 모로나이는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는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판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너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의 신의를 지킬지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자들을 당해 내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에게서 판을 빼앗으려고 온갖 계획과 책략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네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²³

조셉은 판을 들고 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금고를 구할 때까지 안전하게 판을 지켜야 하기에, 조셉은 속이 빈 통나무에 판을 감춘 뒤 마차로 갔다. 그는 마차에 있던 어머니와 함께 동틀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²⁴

집에서는 루시가 초조하게 조셉과 어머니를 기다리며 조셉 일세와 조셉 나이트, 조사이아 스토웰의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혹여 아들이 판을 못 가져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루시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쉴 새 없이 가슴이 쿵쾅거렸다.²⁵

잠시 후, 조셉과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루시는 조셉이 빈손인 것을 보고는 몸을 떨면서 자리를 피했다.

조셉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하고 말씀드렸다. 조셉은 손수건에 싼 물건을 어머니의 손에 쥐여 주었다. 손수건 속에서 커다란 안경처럼 생긴 물건이 만져졌다. 주님께서 판이 번역되도록 마련해 두신 선견자의 돌, 즉

우림과 둠뭍이었다.²⁶

루시는 마냥 기뻐했다. 조셉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듯 편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뒤에는 짐짓 안색을 바꾸고 말없이 아침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뒤, 조셉은 어두운 얼굴로 턱을 괴고서 조셉 나이트를 향해 말했다. “아, 정말 기대했는데.”

조셉 나이트는 조셉을 위로했다. “그것 참 안 됐네.” 조셉은 다시 한 번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라고 하더니 이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 배는 더 훌륭해요!” 조셉은 판의 크기와 무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잔뜩 들뜬 목소리로 우림과 둠뭍에 대해 이야기했다.

“뭘든 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²⁷

판을 얻은 다음 날, 조셉은 금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근처 마을로 우물을 고치러 갔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고개



모로나이는 조셉이 판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너머로 일을 보러 가던 조셉 일세는 우연히 보물 수색꾼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금판을 훔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조 스미스가 갖고 있던 지옥의 악마들이 갖고 있던 상관 없어! 우리가 가져오자고!”

조셉 일세는 놀란 가슴으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렸다. 어머니는 판의 행방은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어딘가에 잘 숨겨 뒀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에 조셉 일세가 말했다. “그럼, 그렇고말고, 에서가 사소한 것 때문에 축복과 생득권을 잃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셉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단다.”²⁸

결국 어머니는 판이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말을 타고 한 시간 남짓 달려서 조셉이 우물을 고치고 있는 농장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일을 하느라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조셉을 우물가에서 찾아냈다. 판이

위험할지 모른다는 어머니의 말에 조셉은 얼른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았다. 판은 안전했다.

조셉 일세는 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초조하게 집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 저쪽에서 아들 내외가 나타났다.

조셉이 말을 타고 다가오며 말했다. “아버지, 판은 무사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²⁹

하지만 가만있을 때가 아니었다.

조셉은 서둘러 산으로 달려갔다. 그는 통나무를 찾아 판을 꺼낸 뒤 셔츠를 벗어서 조심스럽게 감쌌다.³⁰ 조셉은 주변을 경계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숲은 큰길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좋은 만큼 도둑이 숨어들 곳도 많은 곳이었다.

판이 무거워서 빨리 달릴 수는 없었지만, 조셉은 최대한 걸음을 재촉했다. 숲을 지나던 중에 길을 막고 쓰러져 있는 통나무가 나왔다. 조셉이 그 나무를 뛰어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조셉을 세차게 내리쳤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달려들고 있었다.

조셉은 한쪽 팔로 판을 꼭 감싸 안은 채 남자를 바닥에 내치고 숲속 깊은 곳으로 허둥지둥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1킬로미터도 채 못 가서 괴한은 또 나타났다. 나무 뒤에서 나타난 그 사내는 개머리판으로 조셉을 가격했다. 조셉은 그

남자를 때려눕히고 앞으로 내달렸다. 얼른 숲을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세 번째 괴한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어찌나 세계 얻어맞았던지 조셉의 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셉은 있는 힘을 다해 세 번째 괴한에게 주먹을 휘두르고는 집 방향으로 힘껏 내달렸다.³¹

조셉은 한쪽 팔로 무거운 판을 안고서, 쓰러질 듯 문을 열어 젖히며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판을 가져왔어요.” 조셉이 소리쳤다.

열네 살 된 여동생 캐더린의 부축을 받으며 그는 판 꾸러미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식구들은 모두 조셉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와 동생 윌리엄이 꾸러미를 풀어 보고 싶어 했지만, 조셉이 제지했다.

“우린 볼 수 없는 거니?” 조셉 일세가 물었다.

조셉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처음엔 못 그랬지만, 이번에는 충실히 따를 거예요.”

조셉이 셔츠로 덮여 있는 채로는 판을 만져 봐도 된다고 하자, 윌리엄이 꾸러미를 들어 올려 보았다. 꾸러미는 돌보다도 무거웠다. 판은 종이같이 얇은 낱장으로 되어 있고, 책처럼 넘길 수도 있는 것 같았다.³² 조셉은 남동생인 돈 칼로스를

하이럼 형에게 보내 금고를 가져오게 했다. 하이럼은 아내 제루사와 갓 태어난 딸과 함께 근처에 살고 있었다.

곧 하이럼이 달려왔고, 조셉은 판을 금고에 넣은 후 옆에 있던 침대 위로 폴썩 쓰러졌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에게 숲에서 괴한들을 만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제야 조셉은 손에 통증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숲에서 싸우다 엄지손가락을 뺨 모양이었다.

조셉은 이야기를 멈추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제 손가락뼈를 좀 맞춰 주셔야겠어요.”³³ ■

인용된 문헌은 전부 saints.lds.org/kor에서 볼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 정보를 추가로 열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

1. Agreement of Josiah Stowell and Others, Nov. 1, 1825, *JSP*, DI:345-52.
2. Smith, *Biographical Sketches*, 91-92;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200-20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8, in *JSP*, HI:234 (draft 2); Smith, *On Mormonism*, 10. 주제:



조셉은 형 하이럼에게서 위와 같은 금고를 빌려서 돌문경 판을 보관했다.

- Treasure Seeking(보물 찾기)
3. Agreement of Josiah Stowell and Others, Nov. 1, 1825, *JSP*, DI:345-52.
 4. Pratt, *Autobiography*, 47; Burnett, *Recollections and Opinions of an Old Pioneer*, 66-67; Woodruff, *Journal*, July 4, 1843, and Oct. 20, 1855; Emmeline B. Wells, "L.D.S. Women of the Past," *Woman's Exponent*, Feb. 1908, 36:49;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또한 Staker and Ashton, "Growing Up in the Isaac and Elizabeth Hale Home"; and Ashurst-McGee, "Josiah Stowell Jr.-John S. Fullmer Correspondence," 108-17. 참조
 5. Baugh, "Joseph Smith's Athletic Nature," 137-50; Pratt, *Autobiography*, 47; Burnett, *Recollections and Opinions of an Old Pioneer*, 66-67; *Recollections of the Pioneers of Lee County*, 96; Youngreen, *Reflections of Emma*, 61, 67, 65, 69; Emmeline B. Wells, "L.D.S. Women of the Past," *Woman's Exponent*, Feb. 1908, 36:49.
 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4 (draft 2); Smith, *Biographical Sketches*, 92; Bushman, *Rough Stone Rolling*, 51-53; Staker, "Isaac and Elizabeth Hale in Their Endless Mountain Home," 104.
 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8, *JSP*, H1:234-36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2;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8. William D. Purple, "Joseph Smith, the Originator of Mormonism," *Chenango Union*, May 2, 1877, [3]; 또한 An Act for Apprehending and Punishing Disorderly Persons (Feb. 9, 1788), *Laws of the State of New-York*(1813), 1:114 참조. 주제: Joseph Smith's 1826 Trial(조셉스미스의 1826년 재판)
 9.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9.
 10. Knight, *Reminiscences*, 2.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96; 또한 Knight, *Reminiscences*, 2 참조.
 12. "The Original Prophet," *Fraser's Magazine*, Feb. 1873, 229-30 참조.
 13.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97.
 14. Knight, *Reminiscences*, 2;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15.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6 (draft 2).
 16.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Joseph Lewis and Hiel Lewis, "Mormon History. A New Chapter, about to Be Published," *Amboy Journal*, Apr. 30, 1879, 1; 또한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201 참조.
 1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6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11]-[12]; book 5, [1]-[3]. 주제: Sacred Grove and Smith Family Farm(성스러운 숲과 스미스 가족 농장)
 18.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7-68.
 1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4]-[6].
 20. Knight, *Reminiscences*, 2.
 2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
 22.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05.
 2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
 24.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ne 1859, 165-6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
 2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7]; Knight, *Reminiscences*, 2.
 2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7]-[8].
 27. Knight, *Reminiscences*, 2 -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1:222 (draft 2); 또한 엘마서 37:23 참조.
 2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8]-[10];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6; Smith, *Biographical Sketches*, 103; 또한 창세기 25:29-34 참조.
 2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0] and adjacent paper fragment.
 3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 주제: Gold Plates(금판)
 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
 32. "The Old Soldier's Testimony," *Saints' Herald*, Oct. 4, 1884, 643-44; Salisbury, "Things the Prophet's Sister Told Me," 1945, Church History Library; Ball, "The Prophet's Sister Testifies She Lifted the B. of M. Plates," 1954, Church History Library; Smith, *William Smith on Mormonism*,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3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12]. 주제: Lucy Mack Smith(루시 맥 스미스)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나는 서른여섯 살에 교회에 들어왔다. 나는 때에 따라 영적으로 강했던 적도 있었지만, 별생각 없이 다닐 때도 많았다. 일도 바쁘고, 아내가 새로 일을 시작한 데다, 나빠진 건강과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나는 영적인 고비를 맞게 되었다. 교회에 나가고 집사 정원회를 가르치는 일을 돕는 것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경전을 펴거나 무릎 꿇고 기도할 기력도 없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칠레 북부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동료들과 나는 코피아포 공항에서 차로 두 시간을 운전해서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현장이 있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도착했다. 그 지역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가도가도 붉은 사막만

끝없이 펼쳐졌다. 그 적막함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우리는 인근에 있는 마을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보였다. 나는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 그 건물에는 아름다운 뜰이 있었고 검은색 철제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다. 건물 앞쪽에서 나는 익숙한 표지판을 발견했다. “La Iglesia de Jesucristo de los Santos de los Últimos Días”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써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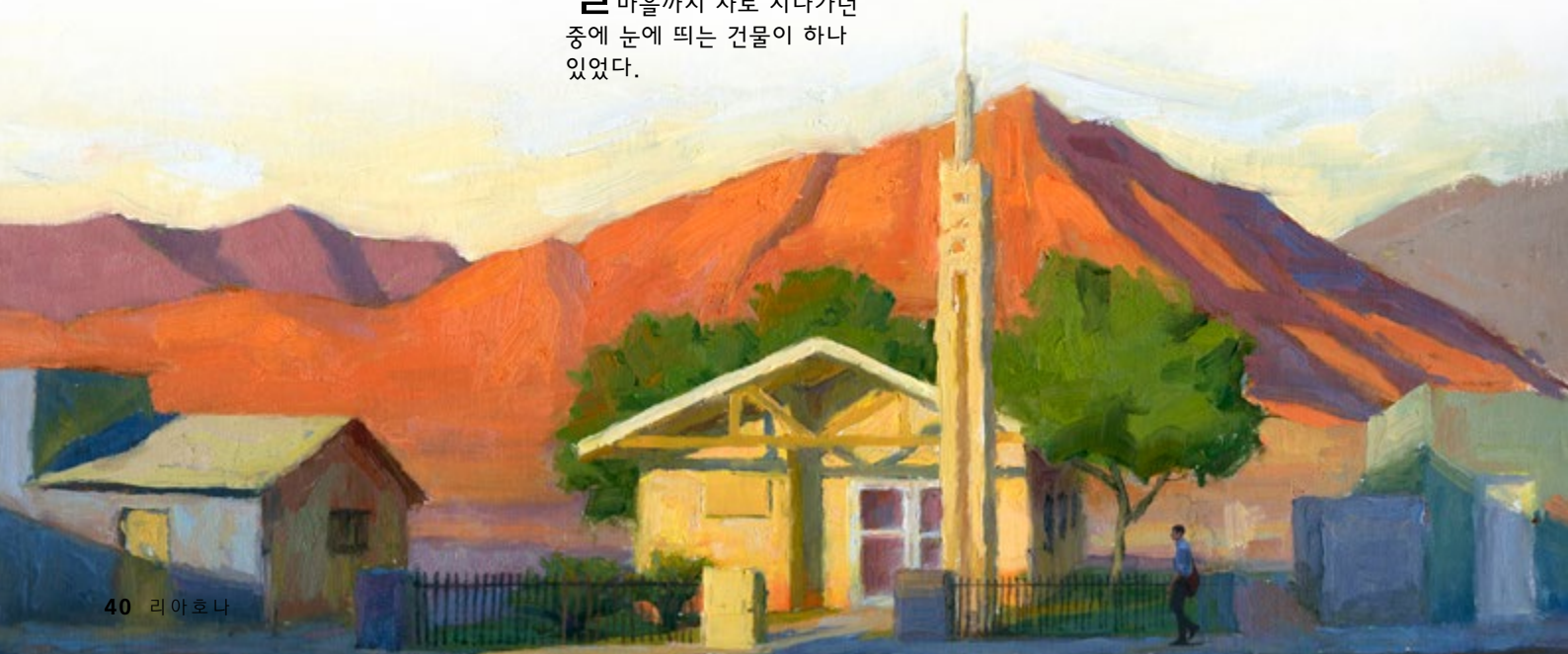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외진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게 놀라웠다. 나는 집회소의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다. 아내의 대답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다 알고 계시네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였다. 일상의 중압감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 그분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작고 외딴 마을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신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드렸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 영성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언제나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
존 에번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근처 마을까지 차로 지나가던 중에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다.



두 선교부에서 축복받은 두 가족

애 리조나 메사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시절, 아르헨티나에 있던 누나는 나에게 이메일을 자주 보냈었다. 나탈리아 누나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몇 년 전에 누나의 딸이 죽었을 때, 가족들이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해 보았지만 누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누나에게 계속 간증을 전했다. 한번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나와 동반자가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분도 딸을 잃은 분이였다. 우리는 가족이 영원하다는 간증을 전했다,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느꼈다. 나는 누나에게 메일을 쓰면서 누나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누나는 답장에서 그런 희망을 느끼고 싶지만 자신은 신앙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누나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해 보라는 내용을 손편지로 적기로 했다. 그런데, 그중 한 문단을 영어로 써서 그것을 선교사에게 보여 주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나는 스페인어만 할 줄 알았다. 나는 누나에게 그것을 들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의미를 알아보라고 했다. 선교사 중 한 명은 영어를 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누나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누나는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편지 내용을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선교사들은 그걸 읽고 미소를 지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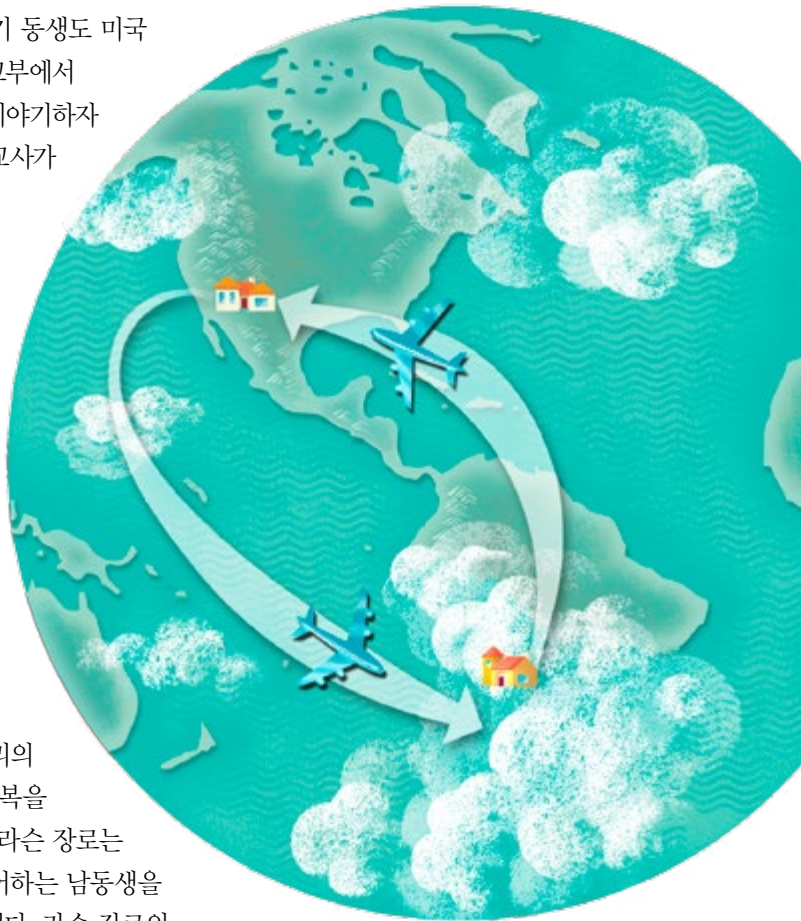
했다. 누나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다고 문자,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편지에 누나가 딸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누나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써 냈었다.

선교사들은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누나는 그 내용이 참 좋았다. 누나가 자기 동생도 미국 애리조나 메사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라스 장로라는 선교사가 반가워하며 자기가 그곳에서 왔다고 이야기했다.

일 년 후, 나는 라스 장로 가족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라스 장로가 우리 가족을 알게 된 것처럼 나도 그의 가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두 가족은 모두 축복을 받게 되었다. 당시 라스 장로는 간증 문제로 힘들어하는 남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라스 장로의 남동생은 회원으로서 여러 번 나의 동반자 역할을 해 주었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간증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라스 장로도 동반자와 함께 계속

우리 누나를 가르쳤다. 누나는 결국 침례를 받았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애리조나로, 라스 장로를 아르헨티나로 각각 보내셔서 우리들의 가족을 복음 안에서 강화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음을 안다. ■

후안 마누엘 고메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나는 애리조나로, 라스 장로는 아르헨티나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족을 축복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이 말의 불안감이 감돌았으나, 나는 몸을 곧추세우며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녀.”

내 신앙을 알림으로써 받은 축복

나는 열아홉 살 때 침례를 받았다. 가족과 친구들 중 다수가 교회에 가입하려는 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내 앞길을 막지는 못했다. 2주 후에 나는 대학교 2학년생이 되었다. 캠퍼스로 돌아오자 내 새로운 믿음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내 종교를 옹호할 용기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다. 대학교 안에서 교회 회원을 만난 적도 없었고, 어디에서 집회소를 찾아야 하는지도, 심지어 근처에 와드나 지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새로 찾은 믿음을 옹호할 확신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며칠 후에 이사 오는 몇 사람에게 도움을 주다가, 브라이언이라는 청년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우리가 캠퍼스를 거닐던 중에 그는 나에게 일요일에 어떤 계획이 있는냐고 물었다. 교회에 갈 거라고 말하자,

그는 “그래? 어느 교회에 다니지?”라고 물었다.

일말의 불안감이 감돌았으나, 나는 몸을 곧추세우며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녀.”

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아울러 브라이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신경이 쓰였다. 바로 그때, 선교사들이 보였다. 브라이언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나는 그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선교사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나를 만난 것을 반가워하며, 다음 날 교회에 가는 데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모두 알려 주었다.

나는 브라이언에게 돌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교회에 관해서도 조금 이야기했다.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이 계속 걸었으나 그때 내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또한 오직 영만이 가져다줄 수 있는 파스함과 화평을 느꼈다. 외톨이로 있는 것과 교회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 걱정했던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선교사들이 도착한 일은 내 신앙을 밝힌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신 한 가지 방법이었다고 믿는다.

그날 이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 ■

크리스틴 맥엘더리, 미국 매사추세츠주

두 번의 뇌 수술을 도와주신 주님

나는 요통으로 물리 치료를 받던 중에 몸 왼쪽 부분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감각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물리 치료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더니 그도 걱정을 하며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MRI 검사를 했더니 뇌가 두개골 아래로 자라는 바람에 척수액이 목 부위에 수년간 갇혀 있었다고 했다. 극심하고 끈질긴 두통과 통증이 그 때문이었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이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나서도 통증은 계속되었다.

6개월 후 다시 의사를 만나 추가 검사를 받았는데, 갇힌 척수액의 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또 받기가 두려웠다. 우리 부부는 여러 가지 의학적 소견을 들은 후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의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두 번째 뇌 수술 후의 회복 기간은 내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영의 위안을 구했다. 말씀과 찬송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신권 축복도 여러 번 받았다.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드린 기도를 들으셨음을 안다. 그분은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 우리 와드의 한 간호사 자매님은 내가 어떻게 약물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우리 삼촌과 숙모는 탈수 증상을 보인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돕고 싶었던 한 초등학교 어린이는 우리 아들을 위해 문간에 자기 장난감들을 놓아두고 갔다. 이 경험과 다른 여러 경험을 통해

나는 구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간증이 날로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이롭고도 성스러운 경험이었다.

두 번째 수술이 성공적이었는데도, 가벼운 통증은 계속되었다. 나는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적응해야 했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목적이 있으심을 믿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시련 중에도 강해지도록 도우시리라는 그분의 약속에 희망을 품는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

브린 부커, 미국 아이다호주

MRI 검사를 한 결과, 목 부위에 갇혀 있었던 척수액이 통증의 원인이었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이었다.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인내하며 균형을 이룸

최 근에 저는 오늘날 청년 성인이 직면한 질문, 어려움, 좌절, 승리에 관해 이해하고자 제 자녀들, 조카딸들, 그리고 한 어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들려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들의 몇 가지 질문과 어려움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나누고자 하는 요점들을 요약했습니다.

성신에 귀 기울인다

여러분들 중 몇몇이 이따금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14:8)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보라,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과 계시를 받을까요? 그것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신에게서 오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패턴이 된, 두 가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와 한동안 사귀다 보니,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간절한 기도와 금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제 감정에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가슴속에 뜨거움이 느껴지지도 않았으나, 제 결정이 계속 좋게 느껴졌기에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응답을 받았기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비슷한 방식으로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교리와 성약 6:22~23 참조)
이제 이를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저는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고,
악보다는 선을
택하며, 균형 있게
책임을 다하면
“끝까지 즐길”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온,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을 부르라는 특별한 임무와 관련된 경험과 비교해 봅시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 임무를 행할 때, 저는 축복을 통해 누구를 불러야 할지 알도록 뚜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느낌은 때로는 접견 전이나 접견 중에, 때로는 접견 후에도 옵니다. 저는 늘 가슴속에 뜨거운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 이후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때면 성신이 저를 인도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신이 저와 소통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음 권고에서 위안과 확신을 얻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악 대신 선을 택함

어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여깁니다. 불분명한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옳지는 않으나 대중적인 이 시대의 의견 중 다수는 좁은 시각으로 볼 때만 이치에 맞는 듯합니다. 하지만 낡은 쓰레기가 새롭게 포장되고 창의적인 광고로 뒷받침된다고 한들 여전히 쓰레기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일이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습니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랴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이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가 일함이니, 이는 그가 아무도, 실로 단 한 사람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아니하며.”(모로나이서 7:16~17)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살아 있는 선지자를 지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위 살아 있는 선지자를 지지한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중적인 몇몇 의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동료들의 압력에 직면할 때, 마치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그런 암시를 하는 의견을 내곤 합니다.

올바른 균형을 이룸

할 일이 너무 많아 마치 사방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 같다고 느끼니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가?

여러분의 길잡이로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영원한 본성과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그 사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힘을 집중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적당한 위치로 가거나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¹ 다음 두 성구를 지침이 되는 원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제3니파이 13:33)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0~21)

믿기지 않을지 모르나,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테



저는 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갔으며, 방과 후에는 꼭두새벽까지 부업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며칠은 두어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게다가 워드 감독단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그 시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우리에게 가족과 고용주와 주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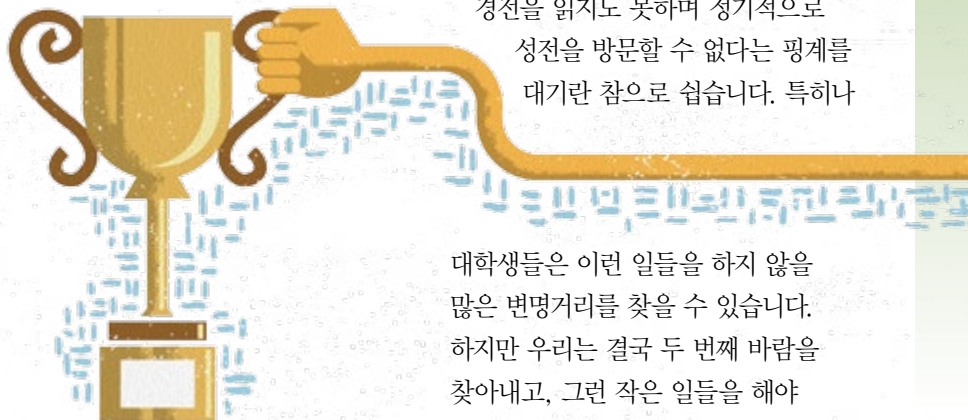
이런 책임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의 여러 직분에서 봉사했습니다. 다섯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 여러 직분에서 봉사하던 당시 자녀들은 어렸고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 저희는 인생을 즐겼습니다.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저 행했습니다.”²

끝까지 즐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복음 생활 점검표를 작성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냥 힘들이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돼.” 끝까지 즐긴다는 것은

이보다는 오히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는 회개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 산책보다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을 요구되지 아니함이라.”(모사이야서 4:27)



어떤 후기 성도는 이 성구를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최선을 다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성구의 앞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러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 이 두 부분이 함께,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줍니다.

젊은 운동선수인 한 친구가 제게 두 번째 바람(second wind)이라는 현상을 알려 주었는데, 이는 피곤할 때에도 계속할 힘을 주는 새로운 활력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제 친구는 자기 인생의 다른 측면에서 두 번째 바람을 발견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밤늦게 집에 돌아온 후 너무 지쳐서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경전을 읽지도 못하며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기란 참으로 쉽습니다. 특히나

대학생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많은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두 번째 바람을 찾아내고, 그런 작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기보다는 우리의 두 번째 바람, 즉 영적 바람을 찾아 끝까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고, 악이 아닌 선을 택하며, 균형 있게 책임을 다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

2015년 6월 9일 수요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전한 영적 모임 말씀, “These Are Your Days[이 시대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큰 계명—주님을 사랑함”,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4쪽 참조.
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33.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

페이스 서덜린 블랙허스트

선교 사업 기간이 반쯤 지났을 때의 일이다. 동반자와 나는 우리 와드 선교 책임자와 함께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감독님께 말씀드리기로 했다. 속으로는 감독님이 선교 책임자와 이야기를 좀 해 보시고 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오히려 감독님은 내가 자존심도 강하고 다른 이들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오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좌절감이 들었다. 감독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기는 하실까?

걸어가는 길에 나는 동반자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갑자기 머릿속에 경전 한 구절이 떠올랐다. “죄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나니.”(니파이전서 16:2)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그 생각은

영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감독님의 훈계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과연 성신과도 논쟁을 할 수 있을까?

잘못은 나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

자기 정당화에서 벗어나기

그때는 내가 잘못된 것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정도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점검할 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편견과 변명, 자신을 속이는 말 등을 이용하여 투과해서 봅니다.”¹

나는 우리 지역의 선교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했었다. 그리고 우리 와드 선교 책임자의 충실한 봉사를 내 눈에는 차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나는 자존심 때문에 감독님의 훈계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과연 성신과도 논쟁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나 자신이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급하고, 그리고 솔직히 불친절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영의 속삭임으로 인해, 나는 내가 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

영적으로 현실을 직시함

영으로부터 그렇게 직접적인 훈계를 받는 것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다. 덕분에 나는 내 결점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것들이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이더서 12:27; 베드로전서 5:5 참조)

결국, 우리의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거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끊임없이 정직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알려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정화하시는 능력에 의지할 때, 나는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훈계를 듣는 자리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기로 결심할 때 나는 더 행복하게 되고 나 자신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안다. 내가 가진 여러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성한 가치가 있으며 그분은 내가 발전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진지한 회개를 통해 나는 내가 꿈꾸던 나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주

1.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여 내나이까?”,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58쪽.
2. 래리 알 로렌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리야호나, 2015년 11월호, 35쪽.
3.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여 내나이까?”, 58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이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칠십인 정원회의 래리 알 로렌스 장로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을 때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직접 하는 말씀처럼 느껴졌다. “겸손하게 주님께 여쭙 보십시오. ‘제 발전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여러분이 진지하다면 응답은 곧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을 위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² 나는 약점에 대하여 영의 속삭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알았다.

약점이 강점이 되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만일 [나의] 약점과 단점이 그늘 속에 가려 흐릿하다면,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이 그것들을 치유하여 강점으로 만들게 할 수가 없”음을 배웠다.³

그러나 내가 나의 취약함을 보이고 겸손하게 연약함을 인정할 만큼 용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상호부조회는 지루할 거라고요?

나는 상호부조회에 들어가는 것이 몹시 걱정스러웠으나, 자매님들이 환영해 주신 덕분에 상호부조회를 좋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살렛 라카발
교회 잡지

열 여덟 살이 되자 나는 날아갈 듯 기뻐다. 어떤 십 대가 그렇지 않겠는가? 당연하지 않은가! 나는 여전히 고등학생이었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있는 데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집에서 허드렛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이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고, 그건 정말 신이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상호부조회의 모든 “나이 드신 부인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자, 설레던 마음은 가라앉고 말았다.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에 나가며 집에는 전기냄비가 있고, 아마도 실내화를 신으며 파이 굽기를 좋아하실 자매님들 말이다! 나는 숙제를 하고 수영 대회에 나가며 손톱에는 파란 매니큐어를 칠한 데다, 방 청소라면 미물 만큼 미루는 것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단 말인가? 분명 상호부조회는 어색하고 외롭고 지루할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렇게 상호부조회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상호부조회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미소와 웃음이 가득했다. 자매님들은 흥미롭고 진심 어린 말을 나누면서도, 웃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둘째, 그분들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론 자매님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나와 내

친구들처럼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셨다. 누군가 내가 궁금해하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주에 강화 모임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매님들이 호신술을 배우고 계셨던 것이다! 나도 배우고 싶었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라슨 자매님이 나에게 일어나서 소개를 해 달라고 하셨을 때는 무척 긴장이 났지만, 그것도 전혀 나쁘지 않았다. 모든 자매님들이 나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게 세미나리를 가르치셨던 에드워즈 자매님은 엄지를 들어 올려 보이셨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시던 리처즈 자매님은 내가 벌써 이렇게 “다 자란 어른”이 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로 나를 “다 자란 어른”으로 대해 주셨다. 나는 어른 옷을 입고 소꿉놀이를 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날 대다수 자매님들께 나는 새로 상호부조회에 온 자매였다.

그 후로 나는 어떤 와드에 참석하든 상호부조회를 좋아했다. 상호부조회에 들어설 때면 금세 자매들로 엮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을 북돋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께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알고 보니, 나는 파이를 꽤 잘 굽는 사람이었다! ■





“우리는 모두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모친 루시 맥 스미스(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25쪽)

상호부조회란 정확히 무엇인가?

상호부조회는 1842년 3월 17일에 일리노이주 나무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두 가지 주된 목적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제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상호부조회는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조직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자매들은 일요일을 비롯해 필요에 따라 다른 기회를 마련하여 함께 모인다.

상호부조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줄 여성들
- 방문 교사로서 다른 여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
-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되며 여성, 딸, 자매, 친척, 어머니로서 봉사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일요일 공과 및 다른 모임들

장로 정원회에서 첫날

나는 어린 새내기 장로였다. 그런 내가 장로 정원회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모든 성도에게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기꺼이 주고, 항상 그들을 사랑하며,
필요한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미망인을 방문[해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26쪽)

델린 쿼트케

나는 장로 정원회가 어떤 곳인지 안다고 생각했기에 장로 정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그다지 걱정하지는 않았다. 우리 워드 장로 정원회의 형제님들을 모두 알고 있기도 했다. 그분들은 내 친구들의 아버지들이었고, 내가 이미 멘토로서 존경하던 분들이었다. 그분들이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분들과 장로 정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골치 아픈 일은 아니었다.

다소 골치 아픈 일이라면, 공과에 이바지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나보다 훨씬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분들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르지만, 같은 곳

장로 정원회는 제사 정원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선, 여러 명의 내 또래들 대신에, 갑자기 어른들과 함께 있게 된다. 장로 정원회에 참석한 처음 몇 번 동안 나는 잠자코 앉아 있기만 했다. 나이가 너무 어린 데다, 장로 정원회에 이바지할 만큼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하지만 참석하는 횟수가 늘면서 나는 마음이 더 편안해졌고, 나이가 많은 적든 저마다 무언가 이바지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복음에 대한 경험이 다르며 다들 각기 다른 원리를 각기 다른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한번은 구주의 속죄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에 내가 손을 들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치르신 덕분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 관해 말했고, 속죄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공과가 끝난 후 한 형제님이 다가와 내 의견에 고마워하시며, 내가 말한 방식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서 내 통찰력을 진심으로 칭찬하셨다.

성역은 신나는 일이다!

장로 정원회에서는 교사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과 정원회의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 모든 관점은 우리가 배우는 것에 관해 더 큰 통찰력을 선사하며, 그 덕분에 우리는 주님께 더 나은 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 가정 복음 교육을 훨씬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내가 선교사가 되면 사람들을 방문해서 가정 복음 교육을 할 때처럼 복음 메시지를 나누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이 일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다. 가르치는 것은 동반자에게 맡기고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대신, 나는 가정 방문 교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꼭 대화에 참여한다. 그렇게

장로 정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 일요일 공과에서 정원회 일원들이 각자의 깨달음과 견해를 공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장래에 남편, 아버지, 신권 지도자로서 말을 역할을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권으로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동료인 정원회의 일원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책임을 배우는 동안 나를 지지해 줄 정원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하면 선교 사업을 잘 준비할 수 있기도 하지만, 더욱 의미 있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있기도 했다. 이제 나는 워드의 회원들과 내 가정 복음 교육 대상자들에게 더 깊이 감사한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장로 정원회에 대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에 관해 분명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은 교사와 지도자, 더 나은 주님의 종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참으로 신나는 일 아닌가!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다.

별도의 도움

엘리 아벨

나는 나만의 속도를 지키며 하강했다. 1.5m쯤 내려갔을 때, 조류에 떠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3m를 내려갔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다.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이 차갑고 탁한 바다는 우리가 연습하던 수영장과는 전혀 달랐다. 두려움과 함께 폐소 공포증이 밀려오자 나는 손살같이 수면 위로 올라갔다.

“무슨 일이죠?” 보조 강사가 물었다. 마스크를 낀 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시험을 치르는 중에 9m 하강을 수행하고 있었다. 시험에 통과하려면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였다. 내가 무서워하자, 강사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용기를 주되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나에게 이 일을 성취하려는 소망이 있고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반원들과 함께 나머지 기술을 모두 수행했다. 힘이 들었지만, 그 격려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

몇 달 후 페루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화하고 삶을 변화시키라고 권유하면서 그 어려웠던 스쿠버 다이빙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동반자와 내가 특히 방문하기를 좋아했던 가족 중에는 루메이 가족이 있었다. 카리나와 엔리케 부부, 그리고 십 대인 두 딸 카렌과 니콜레는 늘 우리를 반겨 주었고, 우리는 금세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다. 카리나와 카렌, 니콜레가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의 회원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엔리케에게는 별도의 도움이

필요했다. 우리의 메시지는 엔리케가 성장하며 배운 것과 달랐기에, 우리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엔리케에게는 몇 가지 염려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음에서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몰몬경이었다. 그는 몰몬경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몰몬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몰몬경이 낯설었던 엔리케는 확신을 느끼지 못했다.

그 무렵의 엔리케는 수월하게 하강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두려움에 움츠러들며 수면으로 올라가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곁에서 기꺼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구도자를 만날지도 모른다.

버렸던 때의 나와 흡사했다. 나처럼 엔리케가 성공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별도의 몇 가지 도움이 전부였다.

이런 도움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졌다. 선교사들은 그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영을 느끼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와드의 따뜻한 회원들은 그와 우정을 쌓고 아버지의 역할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은 엔리케의 가족이었다.

루메이 가족은 침례를 받기 전부터 꼬박꼬박 가족 기도와 가족 경전 공부를 했다. 가족들은 엔리케에게 큰 활자로 인쇄된 경전과 오디오북 경전을 마련해 주었고, 그 덕에 엔리케는 더욱 쉽게 몰몬경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순한 노력은 엔리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한 번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그를 도와주었다. 그들은 엔리케에게 행동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엔리케는 스스로 몰몬경의 힘을 발견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몰몬경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었으며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아내와 두 딸이 침례받은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엔리케도 같은 발걸음을 내디뎌 침례를 받았다.

엔리케는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고 인내심을 발휘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 나는 선교사로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엔리케가 의구심을 극복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이 가족이 보인 사랑의 모범을 목격한 것을 축복이라고 느꼈다. 아울러 내가 어려운 스쿠버 다이빙을 경험한 덕분에 엔리케를 비롯한 구도자들이 개종 과정에서 느낄 법한 감정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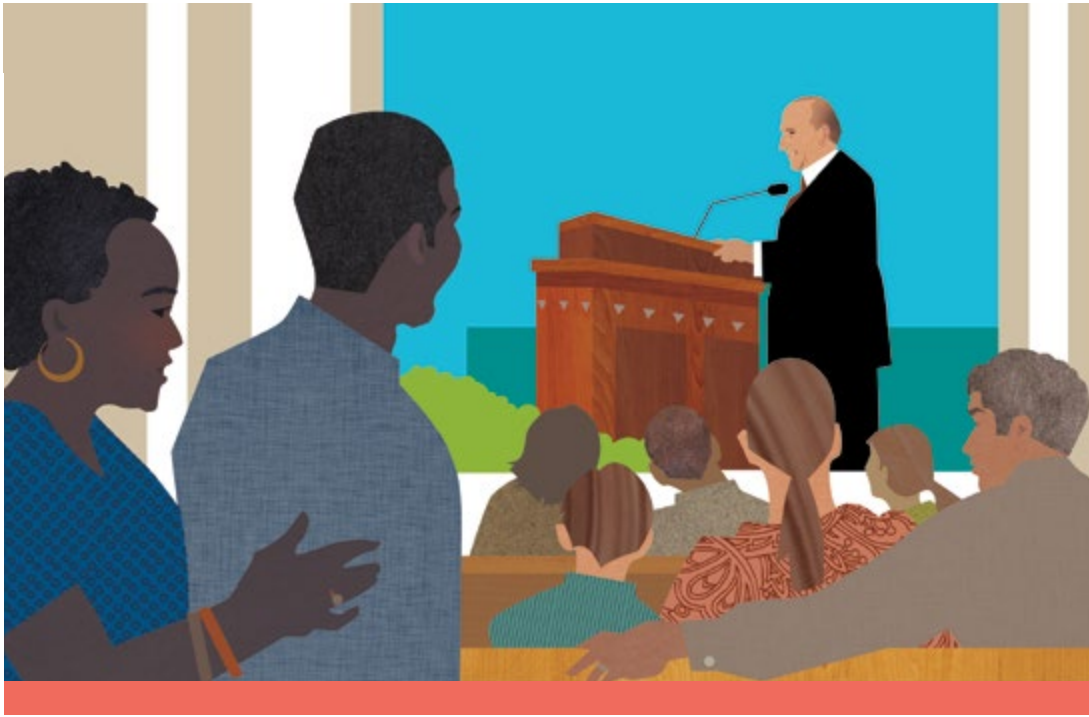
선교사로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권유할 때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몇 가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들은 곁에서 이렇게 말해 줄 노련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없을 거예요.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난 정말 당신을 믿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곁에서 기꺼이 그 과정을 함께하며, 새로운 습관과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승인하셨음을 나타내는 자격증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랄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아이오와주에 산다.



우리들 공간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에 감동하여

나는 열다섯 살 때 슈퍼마켓 앞에서 선교사 두 명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더러 교회에 와 보라고 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에, “나중예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다음날, 이모가 어머니에게 전화하셔서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이모 댁으로 갔는데, 그곳에 전날 보았던 선교사들이 앉아 있지 않은가! 어머니는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셨고, 나도 들어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살아 있는 선지자를 믿느냐고 묻자,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사진을 들고 그분이 선지자라고 간증했다. 선교사들은 나에게 다음날 연차 대회에 와서 스스로 판단해 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나는 호기심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튿날, 개회 기도가 막 끝날 무렵 나는

예배당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화면에 몬슨 회장님이 나오고 있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몬슨 회장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무섭게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인해 주는 느낌이 온몸에 강하게 전해졌다. 연차 대회가 끝날 무렵, 나는 선교사들에게 말했다. “침례받고 싶어요.” 그 후 나는 직접 선교 사업을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회복된 복음에 담긴 훌륭한 진리를 가르쳤다.

나는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현대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마이콩 비, 브라질 상파울루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지지할 수 있는가?

1.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예레미야 1:5, 7 참조)
2.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3. 선지자와 사도들을 지지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일일 때에도 그들을 지지한다.
4.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모범을 공부한다.
5. 그들을 따른다.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믿으며,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고자 힘쓴다.(교리와 성약 21:4-6 참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기숙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 살았다. 나는 수시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침대에서 물몬경을 공부하는데,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았다. 친구는 화를 내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 후 기숙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상한” 믿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어떤 아이들은 나와 내 종교를 조롱했고, 다른 아이들은 그저 나를 피했다. 결국 나는 친구들에게 조롱받지 않기 위해 물몬경을 옷 상자 밑에 숨기고 성경만 공부했다.

그러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게 되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물몬경을 숨김으로써 친구들에게 내가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뜻을 비치게 됨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 물몬경을 꺼냈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다. 그런 다음, 친구들에게 가서 회복된 복음에 관해 간증했다. 그중 대다수는 그때부터 나를 모욕하지 않았고 다시 나와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옹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보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

패멀라 오, 나이지리아 아부자



수화로 하는 봉사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어 내가 처음으로 한 말은 수화로 “우유”였으며, 몇 주 후에야 나는 입을 열고 “판다[pandal]”라고 말했다. 나는 들을 수 있었으나, 내 첫 언어는 미국 수화였다. 나의 어머니는 미국 수화를 쓰는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학교에서 수화를 공부하셨고, 나도 수화를 배우기 바라셨다.

수화는 내 삶에서 크나큰 축복이었다. 나는 수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었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수화는 사람을 하나로 모은다. 나는 사람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학교와 교회에서 발표하기를 좋아한다. 엄마와 함께 연차 대회를 비롯한 교회의 동영상상을 수화로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다.

나는 수화라는 놀라운 수단을 통해 삶에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수화가 없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으며, 수화를 훌륭한 도구 삼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축복과 내가 만나고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놀라운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

이즈리얼 에이치, 미국 오리건주



한 장 한 장 말하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물** 문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고등학교 반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아니,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인이야.”라고 대답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왜 물문경을
읽는데?” 친구는 이 말을 하고서
나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가
버렸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물론 대답은 물문은
기독교인이며,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구주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성경과 더불어
물문경을 읽는다.

나는 물문경을 다 읽어 보았고, 이
책이 참됨을 알았다. 그렇지만 친구가
그렇게 질문하자, 물문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해 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반 친구가 물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자, 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물문경을 읽어
보기로 했다.

나는 물문경을 펴고 먼저 표제지를
읽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독자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 물문경이 기록되었다는
문구가 있었다.

또한, 물문경 소개에서는 “물문경의
기록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곧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신 일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는 성신으로부터 이 기록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심을] 같은
권능으로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언급되어 있었다.

다음에는 “세 증인의 증언”을 읽었다.
세 명의 증인은 한 천사가 물문경
번역의 근원이 된 판을 보여 주었다고
말하며, “우리가 보고 이러한 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여러분 나름의 탐구

모 문경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쉽게 배울 수 있다. 읽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경전 안내서 같은 학습 보조 자료를 사용한다. 경전 안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몰몬경의 참고 성구가 많이 열거되어 있다. 몰몬경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다.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증언"에는 모로나이의 방문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모로나이는 "구주께서 친히 [미 대륙의]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몰몬경에 실려 있다고 말했다.

니파이전서를 읽기도 전에 이미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탐구는 계속되었다. 나는 니파이전서를 읽으며 리하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니파이전서 1:19 참조) 리하이는 "세상의 죄를 제하실" 구속주에 관해 예언하고 있었다.(니파이전서 10:10; 4~10절 참조)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성역, 죽음, 부활 및 고대 미 대륙을 방문하실 그분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었다.(니파이전서 10~12장 참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과, 만인이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몰몬경이 확실히 주리라는 예언도 있었다.(니파이전서 13:40) 그리고

니파이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회개할진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었다.(니파이전서 22:28)

하루 뒤, 나는 53쪽을 읽고 있었다. 몰몬경에서 니파이전서를 다 읽었을 뿐인데, 이미 정말 강력한 증거들을 받은 터였다.

나는 그 후로 몇 주 동안 몰몬경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선지자들이 본 그분의 시현, 그리고 고대 미 대륙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성역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로나이의 힘 있는 간증과(모로나이서 9장 참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몰몬경이 참된지] 간구하여 보라"고 한

모로나이의 과제와(모로나이서 10:4, 강조체 추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마지막 장의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권유를 끝으로(모로나이서 10:30, 32), 몰몬경 읽기를 마쳤다.

그 결과, 몰몬경은 친구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몰몬경은 한 장 한 장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마침내 나는 친구를 다시 만나서 내 경험을 들려주며 몰몬경을 읽어 보라고 권했다. 친구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뒤 내가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한 뜻을 더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

몰몬경에 담긴 기쁨으로 이끄는 힘, 벤 스워즈

“저는 다른 사람들과, 특히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저 자신을 비교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느라, ... 너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결코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높이게 [됩니다]. ...

...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가야 할 길에 계속 머문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멀어 보인다 해도 괜찮습니다. 노력은 계속하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물망초”, 2011년 10월 연차 대회, 번역 수정.



자신이 가진 은사를 알기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개인적인 재능과 영적인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세요. 더 많은 인도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영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재능과 신성한 특성을 발견하고 계발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이전에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감을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이미 피, 17세, 미국 켄터키주



그 사람들을 더 잘 알아보세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면, 저는 그 사람을

조금 더 잘 알아보려고 노력해요. 제 “우상”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살면서 시련을 겪는다는 사실이 강하게 다가오죠. 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그를 결점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 보기 시작하게 돼요.

어밀리아 시, 15세, 미국 아이다호주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이 중요해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외 왕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2016년 1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관한 중요한 의견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을 다해 여쭙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바로잡아 주실 뿐, 절대 낙담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만큼 훌륭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될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돌리고,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제가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도록 기꺼이 도와주세요. 또, 제가 그분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며, 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어맨다 엠, 19세, 브라질 파라나

자신감을 갖기 위해 기도하세요

저도 한때 저보다 한참 앞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곤 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사람들과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어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지 아니하시고는 할 일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죠.(니파이전서 3:7; 17:3 참조)

조슈아 오, 19세, 나이지리아 라고스

제시된 의견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의 은사란 무엇인가?

경전에서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영의 은사라고 말한다.(고린도전서 12:10; 교리와 성약 46:23) 이것은 “영의 힘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이해하거나 아는 것[을 의미한다]. ... 그것은 사람의 참 성격과 영적 나타남의 근원과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경전 안내서 “분별의 은사”, <https://www.lds.org/scriptures?lang=kor>).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고 가르쳤다. (1) “다른 사람들 안에 숨어 있는 잘못과 악을 간파하게 해 [줌]” (2) “우리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잘못과 악을 간파하게 해 [줌]” (3) “분별력은 다른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는 선을 찾아내게 해 [줌]” (4)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선을 찾아내게 해 [줌]”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19쪽)

다음 질문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세미나리에서 전자 기기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8년 7월 15일까지 [liahona.lds.org](mailto: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 또는 피드백 제출” 클릭)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

유스티나 리히너

사 람들은 늘 “너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안다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 같다. 사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가끔 모를 때가 있다. 우리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지도, 멋지지도, 외모가 뛰어나지도, 재미있지도,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다고 느낄 때, 자신감을 잃는 듯하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이런 은사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신성한 가치를 되새기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다

여기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몇몇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아홉 가지 방법이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알려 달라고

부탁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친구나 친척, 또는 교회 지도자에게 그들이 아는 여러분의 은사나 재능을 적어 달라고 부탁한다.

2. 시련 속에서 은사를 찾는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최상의 자질을 발휘할지, 아니면 최악의 자질이 드러나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살이 힘겨울 때, 여러분이 지닌 최상의 성품과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자.

3. 은사를 인식하기 위해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알고 계신다.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은사를 인식하기 위해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

4.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전에 해 보지 않은 것을 하기가 두려워 이미 알고 있는 은사만 계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이 바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몰랐던

은사를 발견할 때이다.

5.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본다.

하나님 아버지는 경전에 나오는 단서를 통해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하도록 도움을 주신다. 주로 행동하라는 권유를 통해서 말이다. 예를 들어 이 성구를 보자.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라.”(교리와 성약 136:23) 이 권유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계발할 수 있을까? 진절할 말을 하는 은사, 다른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은사, 자제하는 은사 등 많은 것이 있는데, 모두 이 한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경전을 읽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

6. 자신의 관심사만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떨 때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돕는 데 집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최상의 자질이 드러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은사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7.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가진 은사를 목록으로

발견하기



찾고자 하는 소망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에는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일하거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Bible Dictionary, ‘Prayer’)

찰십인 정원희 머빈 비 아놀드 장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 은사와 재능을 찾아내고 계발하는 법”, 리아호나, 2014년 12월호, 61쪽.

만들고,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없는 은사에 집중하는 대신, 공통으로 지닌 은사를 발견하고 기뻐한다.

8.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부모님, 조부모님에게 있는 은사 중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더 멀리 가 보자! 가족 역사를 탐구하고, 일화를 찾으며, 여러분이 가족과 공유하는 더 많은 은사를 파악한다.

9. 축복사의 축복을 받거나 읽는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이 갖고

있고 계발해야 하는 은사에 관해 이야기해 주며, 다른 새로운 은사나 재능을 찾도록 인도하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알기 위해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데 전념하면 된다. 그런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모로나이서 10:32 참조) ■

글쓴이는 독일 라인란트팔츠에 산다.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자. 다음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다.

1.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2. 그들의 어떤 점이 좋은가?
3. 그들은 어떤 일을 잘 하는가?
4. 그들이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돌보기

깊이 생각하기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위를
끊임없이 비춥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늘의 빛을 지닌 사람”,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빛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우리의 행성 지구 전역을 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물이 보여 주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늘 매료되곤 했습니다. 특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둠과 빛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심오한 실물 공과로 여깁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24시간 동안 밤은 낮으로, 낮은 밤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밤이란 무엇일까요?

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둠이 깃든 밤에도 태양은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언제나 밝게 빛납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깁니다.

어둠의 밤이 오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소멸한다고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그곳에 없거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림자 아래에 있고, 지구는 계속 자전할 것이며, 결국 태양 광선이 다시 우리를 비추리라는 것을 압니다.

어둠은 빛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우리가 단지 빛을

받아들일 올바른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위를 끊임없이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신성한 빛과 진리를 바라보기 위해 올바른 장소에 있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밤이 닥쳐와 세상이 어둠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실재하심과 위대하심을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전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구할 때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희생할 때마다 빛은 확대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유혹에 맞서 순결을 선택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때마다, 용감하게 진리를 증거할 때마다, 빛은 어둠을 멀리 쫓아내며 빛과 진리를 찾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니다. ■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제일회장단 제 2보좌였던 당시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1940년 11월 6일에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라바에서 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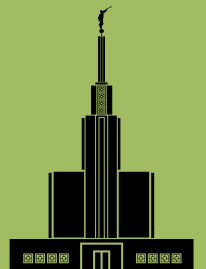
그는 1947년에 독일 쾰비카우에서 교회에 가입했다.

2004년 10월 2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소년 시절 그와 그의 가족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로, 그 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간 피난민이었다.

1962년에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해리엇 라이히와 결혼했다.



그는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일했으며, 29세에 기장이 되었다.

사랑을 보여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Love[사랑]예요.

저는 가족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저의 빛을 비추어요.

저에 대해

저는 나이지리아에 살아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랍니다.
저는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들과 함께 살아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온 세상 어린이들”이고,
제일 좋아하는 성구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이에요.

성전과 가까이

저희 집은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과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지요!
저는 성전에 갈 때마다 정말
기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침례받을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곳

저는 월요일이면 동생들에게 가정의 밤을 하는 날이 되었다고 알려 주어요. 가정의 밤을 할 때면 아빠가 저녁을 요리하시고 모두 함께 춤을 추기 때문에 좋아요. 가정보다 좋은 곳은 없을 거예요.



동생들 돕기

저는 아침마다 가족 영적 모임을 하자고 남동생들을 깨워요. 우리는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경전을 공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모임이 끝나면 동생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동생들을 사랑하고 도울 책임감을 느껴요.

일과 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해요. 동생들의 학교 숙제도 도와주지요. 저는 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자전거 타기와 연 만들기를 좋아해요. 저는 가족에게 사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나요?

- 형제자매에게 책을 읽어 주세요.
- 부모님께 어떻게 도와 드릴지 여쭙보세요.
- 가족들에게 가족 기도에 관해 일깨워 주세요.

별을 보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마태복음 5:16)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추나요? liahona@dscurch.org로 여러분의 별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서를 보내 주세요.



“엄마 부르시면 순종하며 난 매일 가장 옳은 일
행하렵니다”(어린이 노래책, 71쪽)

앤턴은 6단계로 넘어가는 컴퓨터의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앤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미로를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뾰족뾰족한 장애물 위를 나는가 하면, 불길
이 활활 타오르는 터널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자 앤턴은 발을 더 빨리 쿵쿵댔습니다.

“앤턴?”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하필 지금이람!’ 앤턴은 생각했습니다. 앤턴은 장애물을
하나 더 뛰어넘은 뒤 속도를 높여 터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앤턴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필릭스한테 잠옷 입히고 동화책 좀 읽어 줄래? 엄마

주방을 치워야 하거든.”

“음 …” 고지가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앤턴은 마지막 남은
가시덤불 길을 돌아서, 불길을 하나 넘고, 입맛을 다시며
따라오는 괴물을 따돌렸습니다. 아! 드디어 목적지였습니다!

컴퓨터의 화면이 7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더 어려워 보였지만
앤턴은 빨리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7단계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앤턴은 멈춤 버튼을
누르고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동생 필릭스를
안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방금 7단계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엄마는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필릭스를 돌봐 준 다음에
한 단계 더 해도 되지 않니?”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허영.” 필릭스가 앙증맞은 두살배기 말투로 말했습니다.

앤턴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게임을 하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필릭스 재우기

하이디 폴먼
실화에 근거함



앤턴은 필릭스를 안고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아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누구게?” 앤턴은
 말랑말랑한 필릭스의 배를 꼭 찌르며 말했습니다. 앤턴이
 필릭스의 배를 입으로 불자 필릭스가 자지러졌습니다.
 앤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앤턴은 필릭스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잠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필릭스를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필릭스에게 동화책도 읽어
 주라고 하셨지만, 중요한 건 다 끝낸 터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자기 전까지 2단계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앤턴은 셔츠가 잡아당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필릭스가 침대에서 기어 나와
 있었습니다.

“곰돌이?”
 필릭스가



물었습니다.
 필릭스는 책이
 든 바구니로 달려가
 앞표지에 북극곰이 그려진
 책을 집어 왔습니다.

“아, 필릭스, 형은 할 일이 있어!”
 앤턴이 말했습니다. 필릭스는 머리 위로
 책을 들어 올린 채 커다란 갈색 눈으로 앤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앤턴은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겠지? 아, 알겠어.”

앤턴이 필릭스의 침대에
 앉자 필릭스가 앤턴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필릭스가
 기대어 있는 동안 앤턴은
 동화책의 첫 장을 펼쳐 읽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필릭스는 책장에



그려진 동물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이름을 대는 연습을
 했습니다. “얼룩 ... 말, 프야밍고, 바다 ... 코끼디.”

앤턴은 다 읽은 책을 덮고 필릭스에게 담요를 덮어
 주었습니다. “잘 자, 필릭스.” 앤턴은 필릭스의 이마에 뽀뽀를
 한 뒤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걸어가는데 다시 필릭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아 주.”

앤턴이 미소지었습니다. “알았어. 옆으로 조금만 가 봐.
 잠깐만이야.”

앤턴은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적어도 지금만큼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릭스가 크게
 하품을 하고 눈을 감자 앤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게임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토르티야, 그리고 친구

린지 스티븐스 태너, 머리사 드니스
실화에 근거함

“친구가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Children’s
Songbook, 262)

에이드리아나는
심심했어요.
쌍둥이 자매인
다이애나와 놀고
싶었지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엄마를 따라
장을 보러 가 있었어요.
에이드리아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엄마와 다이애나를
따라갈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드리아나는 이웃에 사시는
마르가리타 할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다 큰 자녀들을 둔 마르가리타 할머니는 에이드리아나에게
할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에이드리아나는 마르가리타
할머니와 함께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에이드리아나는 바깥으로 나가서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마르가리타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지요. 에이드리아나는
문으로 고개를 숙 들어밀었어요. “마르가리타 할머니, 안에
계세요?”

“오냐, 주방에 있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드리아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마르가리타 할머니를 보았어요. 에이드리아나가 들어가니
할머니가 올려다보셨어요.

“안녕, 에이드리아나.”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살짝 웃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슬퍼 보이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에이드리아나가 여쭙어보았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넌 걱정할 것 없단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
기분이 나아지실까?”
에이드리아나는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함께 요리할 때 항상
행복해 보이셨어요.
“토르티야 만드는 것
도와드릴까요?”
“방금 내가 좀
만들어 놓았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천으로 된
덮개를 걷고 토르티야
더미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토르티야 먹는 것을 좀
도와드릴까요?” 에이드리아나가 씩
웃으며 여쭙어보았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같이 먹을 콩을 좀 데워
주마.”

에이드리아나는 할머니와 함께 불 앞에 서서 냄비에
든 조리된 검은 콩을 저었어요. 그리고 콩이 다 데워지자
식탁으로 가져갔지요. 할머니는 토르티야와 치즈를
가져다주셨어요.

에이드리아나는 따뜻한 토르티야에 콩을 올리고 그 위에
치즈를 뿌렸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어서 한 입 먹고
싶었죠.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도 될까요?” 에이드리아나가 마르가리타 할머니께
여쭙어보았어요.

“물론이지.”

에이드리아나는 눈을 감고 팔짱을 껴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축복하셔서 저희가
건강하고 튼튼해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르가리타 할머니께

필요한 일을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제 친구여서 정말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이드리아나는 눈을 떴어요. 할머니가 함박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에이드리아나와 마르가리타 할머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학교와 운동, 책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에이드리아나는 마르가리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어요.

음식을 다 먹자, 에이드리아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 드렸어요. “음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도 에이드리아나를 안아 주셨어요. “내가 고맙구나,

에이드리아나. 오늘 난 친구가 필요했단다.”

에이드리아나는 활짝 웃었어요. “우리가 친구라서 기뻐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우리가 친구라서 기쁘단다. 남은 토르티야를 집에 가져가지 않으련? 난 정말 배가 부르거든.”

에이드리아나는 폴짝폴짝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에이드리아나도 정말 배가 불렀어요. 하지만 그건 토르티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지요.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주에 산다.

우정이 담긴 토르티야

다음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친구와 함께 옥수수 토르티야를 만들고 나눠 먹어 보세요! 꼭 어른에게 도움을 부탁해야 합니다.

옥수수가루 2컵
뜨거운 물 1컵 반

1. 옥수수가루와 뜨거운 물을 섞어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을 치대요.
2. 반죽을 통글러 작은 공 여러 개를 만들어요. 두 장의 기름종이 사이에 반죽으로 만든 공 하나를 넣어요.
3. 접시나 냅비로 반죽을 여러 차례 꼭 눌러요.
4. 중불에 올린 프라이팬에 토르티야를 구워요. 윗부분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 반대쪽을 구워요.
5. 토르티야 위에 콩과 치즈를 곁들여 먹어요!

1



2



3



4



5



기적

부드럽게 ♩ = 68

작사 및 작곡: 샤나 벨트 에드워즈

4 *mp*

1. 물 위 걸 으 신 예 수 님 바
2. 나 를 살 리 려 치 르 신 그

7 람 과 바 다 잠 재 우 시 고 치 유 하 시 는 손 길 로 건
희 생 은 혜 값 을 길 없 네 부 활 하 신 주 나 에 게 가

11 *cresc.* ----- *mf*

계 하 시 고 보 계 하 셧 네 떡 한 덩 이 로 수 천 명 모 두 떡 이 시 고 어
장 위 대 한 선 물 주 셧 네 나 회 개 할 때 마 다 용 서 받 을 수 있 고 언

11 *cresc.* ----- *mf*

© 2018 샤나 벨트 에드워즈.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본 문구는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함.

15 *f*

린 소 녀 죽 음 에 서 일 으 키 션 다 네
젠 가 다 시 그 분 과 함 께 살 수 있 네

17

예 수 님, 기 적 의 하 나 님 그 분 께 모 든 것

21

가 능 하 다 네 그 분 행 하 신 기 적 가 운 데 가 장 큰

24 1.

기 적 은 나 를 구 원 하 신 기 적 이 네

27 2. *mp* *molto rit.* *p*

네 우 리 들 을 구 원 하 신 기 적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시며,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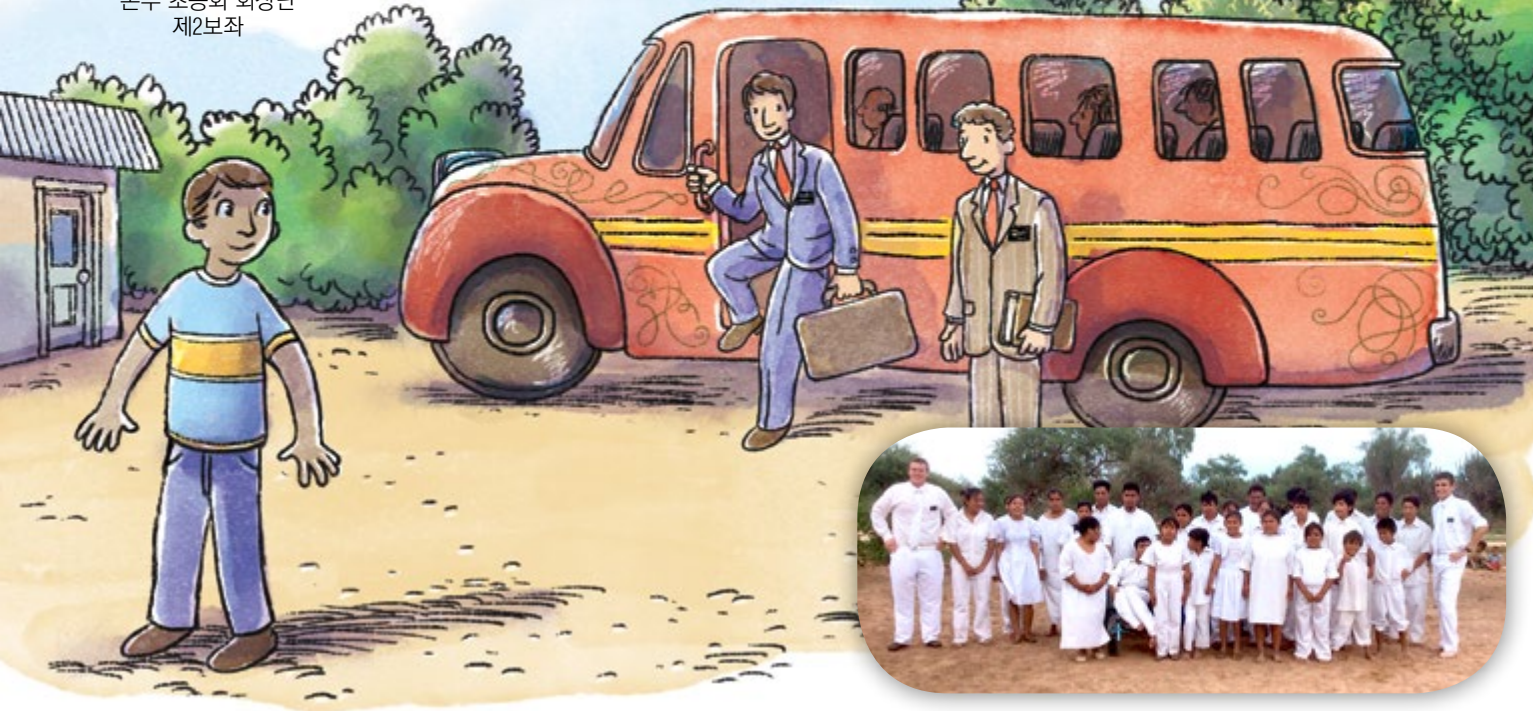
데일 지 렌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선한 목자”에서 발췌,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32쪽.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도시에서는 일요일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서 만나 경전을 읽고 복음에 관해 배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은 침례받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은 매우 외진 곳에 있었고, 그곳까지 방문을 오는 교회 지도자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네 시간 정도 거리의 한 도시에 선교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선교사가 있는 곳까지 갈 버스표를 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남자는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선교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두 명의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선교부 회장님은 이들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교부 회장님과 선교사들이 도착한 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까지 침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토론을 배운 후, 그들은 마침내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강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동식 수영장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동식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만 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총 27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이 침례받기 원하는 것을 아시고 선교사를 찾으러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그분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심화: 브레드 테어

모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김웹 리드



어느 날 애굽의 공주님이 바구니에 누워 있는 히브리 아기를 발견했어요. 공주님은 이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왕자로 키웠답니다.

어른이 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편을 들자, 애굽 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도망을 가야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아가서 히브리 백성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히브리 백성을 풀어 달라고
부탁했지요. 바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마음을 바꾸려고
모세에게 그 땅을 저주로
치게 하셨습니다. 파리,
이, 개구리가 애굽 땅을
뒤덮었죠. 결국,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떠나도
좋다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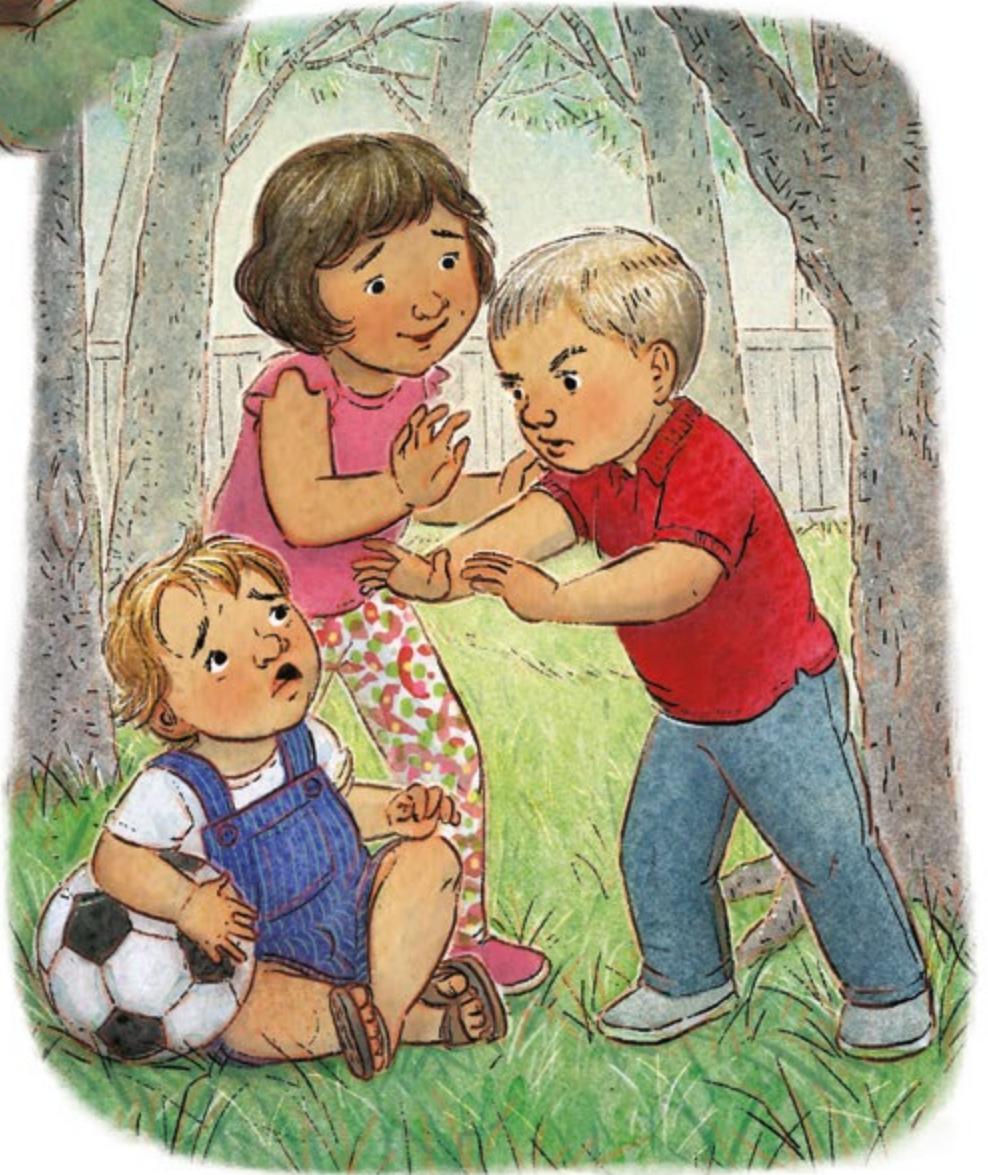


히브리 백성이 떠나고 있을
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군대에게 명하여 그들을
뒤쫓게 했어요. 모세의
백성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되었답니다!

나는 모세처럼 될 수 있어요. 나는 계명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행동할 때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



출애굽기 2~34장에서 발췌.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우리의 안식일 성소

예배당을 성찬식을 하기 위한 신앙과
헌신이 깃든 성소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 축복받을 것입니다.

성찬식은 훌륭하고도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음미할 수 있는
성스럽고 특별한 장소이자 성소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영원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70분간 구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예배당을
성찬식을 하기 위한 신앙과 헌신이
깃든 성소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 축복받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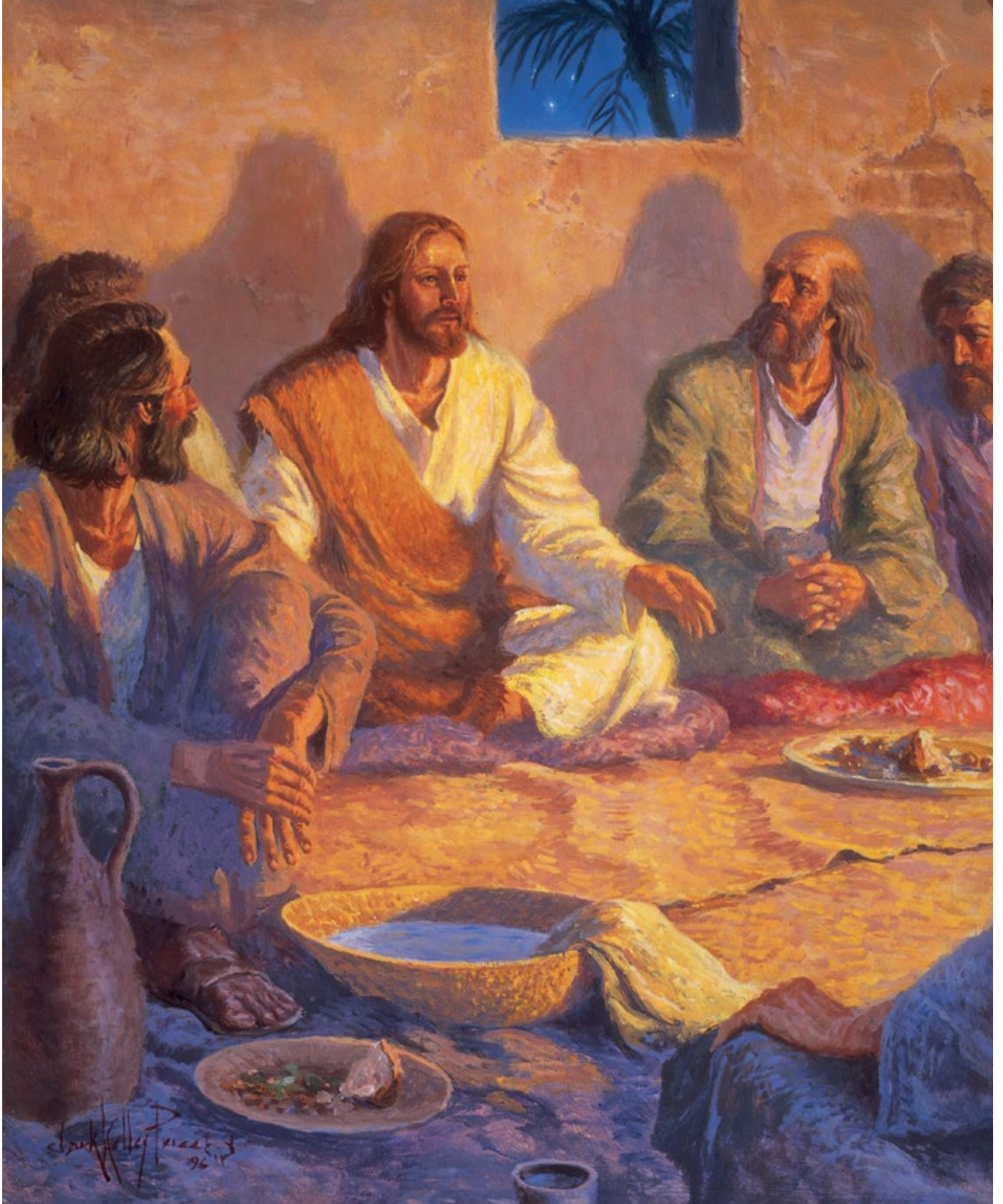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연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증하며
경전과 그 외 출처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잘
준비된 성찬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안식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관련해 발전했으나 아직 더 향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과
선교사들이 안식일 예배 동안 영적으로

매우 고무되어, 모두 자신의 이웃,
구도자, 친척들에게 “와서 보세요. 와서
우리과 함께 예배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지까지 다다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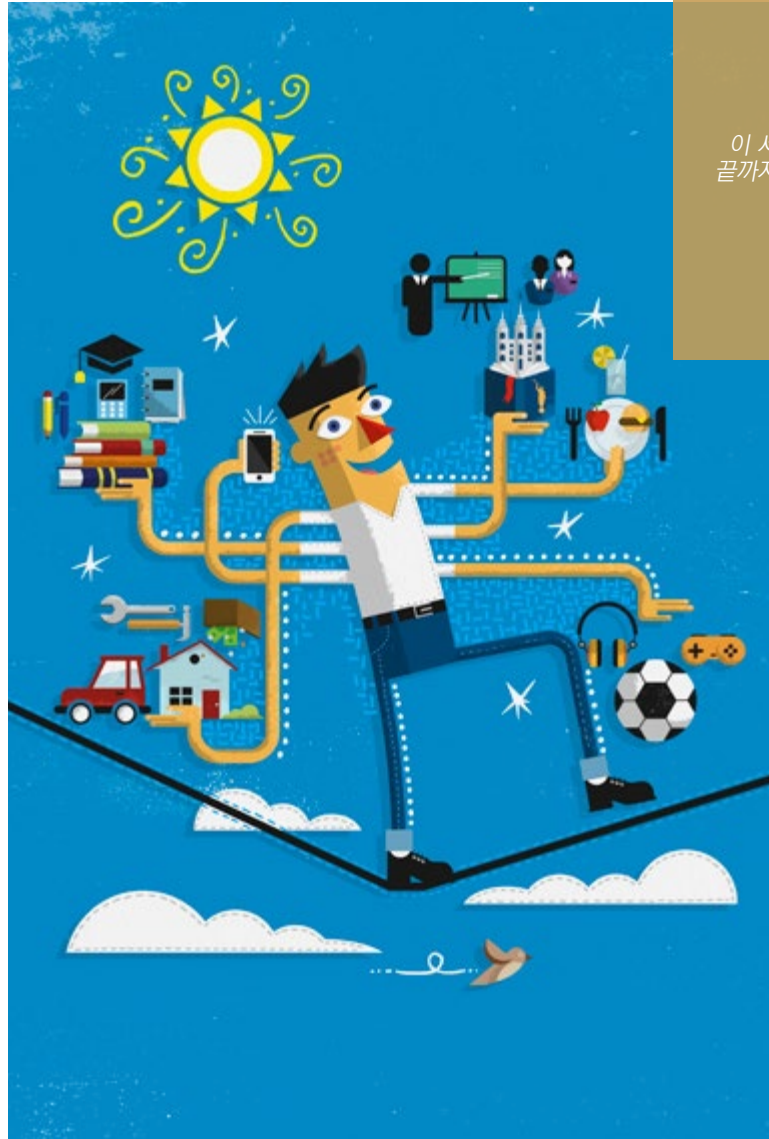
우리 교회 전체에서 이렇게 한다면,
“와서 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갖는 힘을 느낄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과 함께 예배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복음의
빛이 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환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

<https://www.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the-chapel-our-sabbath-sanctuary?lang=kor>의 “예배당: 우리의 안식일 성소”에서 발췌



최후의 만찬,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14, 19~20)



청년 성인
인내하며
균형을 이룸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름으로써
끝까지 견디기보다 "끝까지 즐길"
수 있다.

44

18세들에게
청소년 프로그램 후에는
뭐가 있을까?

50

청소년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62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4 02147 52320 4